

파주시 공직자 임진강 탐사기록

# 臨津江은 살아있다

## 임진강은 살아있다

2000년 12월 일 인쇄  
2000년 12월 일 발행

• 발행처 : 파 주 시  
(www.pajusi.go.kr)

파주시 임진강 탐사단

## 목 차

|                        |                     |
|------------------------|---------------------|
| ▷ 머리말 '책을 엮으면서'        | 편집자 / 3             |
| ▶ 발간사 '미래를 준비하는 임진강'   | 파주시장 송달용 / 5        |
| ▷ 파주자랑 열 마당            | 탐사단장 이창우 / 7        |
| ▶ 파주문화의 寶庫, 임진강은 살아있다. | 문화체육과장 박재홍 / 13     |
| ▷ 파주의 젓줄 임진강변 탐사를 마치고  | 산악회장 안상훈 / 25       |
| ▶ 애! 적벽 임진강의 봉우리여      | 여성회관장 김영애 / 30      |
| ▷ 파주의 보배 임진강을 탐사하고     | 환경지도담당 안배옥 / 39     |
| ▶ 임진강의 현주소와 개발방향       | 하천담당 서상호 / 44       |
| ▷ 파주시민의 식수원인 임진강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정명기 / 46  |
| ▶ 임진강의 자원화 가능성         | 기획실 권예자 / 48        |
| ▷ 아쉬움이 남는 여행           | 문화체육과 이호병, 이성근 / 53 |
| ▶ TBN(대구교통방송) 인터뷰 내용   | 57                  |

### (부 록)

|                   |    |
|-------------------|----|
| ☞ 임진강유역 개황도       | 67 |
| ☞ 임진강유역 문화유적 분포도  | 68 |
| ☞ 임진강 탐사장면 영상자료   | 71 |
| ☞ 임진강 수계치수 기본계획   | 91 |
| ☞ 임진강 탐사기행 참가자 명단 | 97 |



## 책을 엮으면서

금번 임진강탐사는 민족의 젖줄이자 파주의 생명의 강인 임진강의 수려한 경관과 문화 유산이 더 훼손되기 전에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계 부서 공직자들이 직접 임진강을 탐사하라”는 송달용 시장님의 지시로 실시되었다.

탐사는 많은 경험을 갖고있는 파주시청 산악회의 주관으로 2000년 2월 18일 오전부터 당일 오후 늦게까지 실시되었으며 이창우 전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여 시청 내 기획실을 비롯한 각 부서별로 24명이 고루 참여하였고, 중부일보 김영택 기자가 동행하였다.

탐사코스는 임진강 남, 북 兩岸을 따라 적성면 어유지리에서 파평면 장파리 22km에 걸쳐 도보 탐사로 실시되었다.

이 책자는 탐사단이 각각 제출한 기행문과 연구자료를 중심으로 엮었으며 ‘탐사보고서’라기보다는 일종의 개인 기행문으로써 공직자들이 임진강에 대하여 보고, 느낀 소감을 자유롭게 기술한 것임을 참작하기 바란다.

아울러 본 책자의 내용이 임진강유역에서의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발 간 사

# 미래를 준비하는 임진강



파주시장 송 달 용

먼저 임진강유역의 탐사를 무사히 끝내고 이런 탐사기록까지 발간해준 탐사대원 여러분과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처음, 한반도의 허리이며 파주의 젖줄인 임진강을 공직자들이 돌아보게 한 뜻은, 이 지역이 분단 반세기 동안 거의 버려졌던 땅이지만 앞으로 이 땅의 후손들이 삶의 터전으로써 번영할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소중한 가치를 살펴보고 이제라도 임진강 보존대책을 마련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아울러 파주시민들의 식수원인 임진강이 상류지역의 무분별한 오염으로 수질이 악화되는 실정에 있어 그 실상을 직접 체험하고 상류지역에 각성을 촉구해 보자는 의도를 갖고 시작되었습니다.



임진강은 누가무어라 해도 우리 파주의 자랑이자 민족의 자랑입니다.

임진강은 역사적으로 원 삼국시대부터 고구려, 신라, 백제의 각축장으로써 수많은 성곽과 전쟁유물이 산재되어 있는 역사와 문화의 땅으로, 지리적으로는 한반도의 중심을 가로질러 한강과 합류한 후 서해로 흘러들어 가면서 비옥한 옥토와 풍부한 산물을 생산해 내는 풍요의 땅입니다.

또한 임진강은 그 수려한 경치와 뛰어난 경관으로 수많은 시인, 묵객들의 칭송을 받았던 복 받은 땅입니다.

비록 전쟁의 참화를 겪으면서 이 땅이 한 순간에 접경지역이라는 굴레를 쓰고 낙후되고 침체되었지만, 이 땅은 앞으로 21세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전원, 문화, 관광도시로 발전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래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미리 잘 준비하고 가꾸었을 때 꿈은 성큼 우리에게 다가설 것입니다.

이제 임진강 탐사를 시작으로 전 공직자는 물론이고 18만 시민 모두가 우리의 젖줄 임진강에 대해서 한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나의 사랑 임진강 가꾸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거듭 「임진강은 살아있다」의 발간을 축하하고 탐사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애써주신 육군 제7296부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파주지랑 열 마당

탐사단장 이 창 우

파주에 부임해서 이제 겨우 어렴풋이 눈을 뜨기 시작했지만 알면 알수록 너무나 많은 자랑거리가 있는 곳이 이곳 파주 땅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정작 우리 파주사람들은 내가 살고 있는 이 고장을 알리고 또 자랑하려고 하는 노력은 다소 부족했던 것 같다. 아니면 내 동네 자랑이 너무 많아서 무엇부터 이야기 할 지를 모르거나...

어쨌든 파주 땅에 보금자리를 틀고 지금은 어엿하게 지역 유지로 크신 분들도 파주의 대표적인 자랑 몇 가지만 대보라고 하면 대뜸 입을 다물어 버린다. 파주사정이라면 누구보다도 밝은 공무원들조차 파주자랑에는 인색해 보인다. 파주를 고향이라고 하고 파주인임을 자부하면서도 파주를 자랑할 줄 모른다면 어찌 파주사람이라 하겠는가? 이것이 내가 파주의 자랑을 열 마당으로 만들게 된 배경이라면 배경이다.

우리 파주의 자랑 ①번 마당은 우리 민족 통일의 염원이 담긴 국도 1번 통일로를 쫓는데 주저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목포에서 시작된 1번 국도가 수도 서울을 지나 파주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이른바 '통일의 길목'에 우리가 있다. 장차 파주로부터 열리게 될 통일은 반드시 자유 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통일이다. 그리고 그 자유를 상징하는 자유로가 통일로와 함께 힘차게 달리는 곳! 이 바로 우리 파주의 첫 번째 자랑이다.

②번째 마당은 한반도의 젖줄 한강과 국내의 長江인 임진강, 두 강을 들지 않을 수 없다. 함경남도 마식령에서 발원하여 254km를 달려 한강과 만나는 임진강은 풍부한 수자원을 제공하고 기름진 옥토에서 기름 잘잘 흐르는 파주 쌀(그 중에서도 탄현 쌀)을 생산해내지 않는가? 참으로 파주의 보배가 아닐 수 없다.

③번째 마당은 이와 같이 山紫水明한 자연과 명당에서 배출된 위대한 선현 세분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조선조의 청백리 황희 정승, 고려시대 명장 윤관 장군을 비롯하여 우리 민족의 정신적 지주이신 세계적인 석학 이율곡 선생이 바로 파주 분임을 아는가? 모르는가?

④번째 마당은 파주가 6. 25와 같은 엄청난 국난 속에서 수많은 死線을 형성하였고 우리 민족이 죽자살자 지켜온

중요한 국가적 요충지라는 점을 들지 않을 수 없다. 파주는 예로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반도의 패권을 다투던 곳이고 불과 50여년 전 동족상잔의 6. 25 한국동란으로 300만 이상의 사상자를 내고 국토가 남북으로 분단된 우리 민족의 한이 서린 땅으로 수많은 전적지와 기념물이 있는 곳이다.

⑤번째 마당은 파주지역 발전의 바람을 몰고 왔다고 할 수 있는 '92년도 자유로 개통과 함께 오두산에 통일전망대를 세우고 통일동산을 조성 중에 있고 장차 자유로와 37번 국도를 이용해서 경기 5악의 하나인 감악산을 연결하는 임진강 관광벨트를 조성할 계획이며 21세기 인구 50만을 수용하는 전원, 문화, 관광도시로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무한한 성장의 땅이라는 점이 파주의 다섯 번째 자랑이다.

⑥번째 마당은 6개소에 달하는 향교와 서원이다. 파주는 지리적으로 고려시대의 도읍지인 개성과 조선시대의 수도인 한양을 연결하는 지역으로 양대 왕조에서 활약한 수많은 문관과 선비들이 학문을 논하고 퇴관 한 후, 후학을 양성하던 곳으로 일종의 관학인 향교 3개소(교하, 적성, 파주)와 사학인 서원 3개소(자운, 파산, 용주)등 모두 6개소에 달하는 전문 교육기관을 갖고 있던 문향의 고장이라는 점을 부인할 파주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⑦번째 마당은 경의선 철간 다리다. 금촌, 봉일천, 교하에서 낳고 자란 파주인이면 누구나 경의선 철간 다리의 아련한 추억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서울에서 출발하여 파주, 개성을 경유해서 신의주, 압록강 접경까지 연결되는 경의선 철도는 통일이 되면 대륙으로 진출하여 중국, 시베리아, 유럽으로 연결하는 유라시아 철도의 동쪽 끝으로 장차 동북아시아의 대동맥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중요한 철도의 중간에 우리의 영원한 추억이 담긴 철간 다리가 있다. 다리 위에서 놀다가 기차가 오면 얼른 레일과 다리사이에 쏙 들어가서 피했던 위험한 놀이(?)를 하던 우리들이다. 철간 다리 밑을 흐르는 곡능천에서 붓으며 쏘가리며 게를 잡아 매운탕을 끓여먹던 천렵을 기억하는가?

⑧번째 마당은 임진강의 8경을 빼놓을 수 없다. 이른바 1경은 화석정에 찾아든 봄이 으뜸이요, 2경은 長山에 드리운 낚시 풍경이요, 3경은 松岩 사이로 스치는 바람소리요, 4경은 長浦에 내리는 이슬비요, 5경은 東坡에서 보는 달이고, 6경은 舟月에서 보는 赤壁이다. 그리고 지금은 비록 기록으로만 전하지만 7경은 桐園에서 보는 눈이고, 8경은 津頭寺에서 들려오는 은은한 종소리가 그것이다.

여덟 가지 경치를 일일이 즐겨보지는 못하였지만 임진강의 구비 구비, 가는 곳, 보는 것, 돌과 나무, 정자 어느 것 하나

어찌 절경이 8경 뿐이리오?

⑨번째 마당은 갈매기 벚삼아 놀았다는 낭만적인 반구정이다. 이곳은 문산에서 당동리 쪽으로 5분 정도 달리면 조선조의 청백리 황희정승이 은퇴 후에 풍류를 즐긴 곳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보다도 한양의 삼각산(만경대, 인수봉, 백운대)과 개성의 송악산이 반구정을 중심으로 일직선을 이루어 한눈에 관망할 수 있는 명당으로 더욱 유명하다. 이곳에 오르면 임진강의 시원한 강바람이 갯 내음과 함께 불어와 시인이 아니더라도 시 귀가 저절로 나옴직한 곳이다. 이곳에서 먹어보는 황복과 장어구이의 맛 또한 경치 못지 않은 즐거움이다

⑩번째 자랑은 이와 같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땅이면서 수많은 문화재를 간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산 높고 물 맑으며 공기 좋은 자연환경 속에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며, 이 땅을 영원히 수십 백대를 번영시켜 나가게 될 파주 사람들을 열 마당에 올리면서,

⑪번째 마당은 우리들 각자가 내가 살고있는 이곳에 애정을 갖고 가꾸어 자랑을 많이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하는 〈미완성의 공간〉으로 남기고자 한다.

분단 반세기 동안 낙후되고 버려졌던, 한때 상실의 땅을 21세기 통일조국의 중심지역으로,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변모

시키는 일은 이 시대, 이 땅을 사는 파주인 모두의 책무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대 명제는 내 땅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가꾸어 나와 내 후손에 물려주어야 하는 일이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파주의 자랑을 널리 알리는 노력과 함께 파주 사랑을 온몸으로 실천하는데 우리모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로 끝을 맺는다.

(主) 이 글은 이창우 전 부시장께서  
파주 재직시 쓴 글임

## 파주문화의 寶庫

# 임진강은 살아있다

문화체육과장 박 재 홍

## I. 들어가면서

파주의 역사와 문화를 이야기함에 있어 임진강을 빼놓고는 그 어떤 이야기도 진행시킬 수 없을 정도로 임진강 유역은 파주의 흥망성쇠를 그대로 보여주는 지역이다.

예로부터 큰 강을 낀 지역은 인간이 거주하기 쉬운 곳으로 문명의 꽃이 피워져 왔다. 임진강을 끼고있는 파주 땅은 바로 이러한 인간 주거환경에 가장 적합한 곳이다. 높은 산이 있는가 하면 서쪽으로 낮은 구릉이 형성되어있고, 한강과 임진강의 지류들이 파주의 양쪽을 감돌아 흘러들어 교하에 합류한 후, 황해로 흘러 들어가며 바닷물이 이 강을 따라 육지의 깊은 곳까지 들어오는데, 이러한 환경은 인문, 지리적으로 수많은 문화유산과 풍부한 산물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천혜의 자연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수많은 역사적 사건을 경험한 이 땅에 대한 이제까지의 일반적인 인식은 사실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강하게 작용하여 왔다.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의 종식과 함께 이 땅에 군사 분계선이 그어지면서 파생된 휴전선, 비무장지대, 철조망, 미군기지, 군사도시와 같은 접경지역의 차갑고 어두운 이미지가 분단 반세기동안 파주의 고정된 이미지로 존재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요소들은 군사시설보호법과 같은 아주 강력한 규제에 의하여 주민생활이 엄격히 통제됨으로써 지역발전이 낙후되고 침체되었으며 이점은 21세기를 목전에 둔 지금까지도 지역 발전에 최대 걸림돌로 남아있다.

이를테면 대한민국의 안보를 담보로 한 불이익을 접경지역으로 변해버린 이 땅의 주인들이 모두 떠 안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요소는 수 천년의 역사 중 불과 분단 반세기 동안에 형성된 이미지일 뿐 파주의 본래의 모습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들이다.

역사적으로 파주는 한강과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고구려(술이홀현, 천정구현), 백제, 신라(봉성현)가 각축을 벌여온 요충지였고, 고려의 도읍지였던 개성과 조선의 도읍지였던

한양의 중간부분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선진문물과 학문이 발달되었고 수많은 문화유산과 율곡 이이, 방촌 황희, 우계 성혼선생과 같은 위대한 先賢을 배출한 고장이다. 조선조 주자학의 양대 산맥인 영남학파와 기호학과 중 임진강유역을 기호학파의 중심으로 삼는 이들도 있다.

또한 임진강과 한강하류에 위치한 파주는 기름진 옥토에서 생산되는 쌀이 일품일 뿐 아니라 감악산, 파평산 등의 山紫水明한 경관과 더불어 많은 시인 묵객들에 의해 예찬을 받아왔으며 조선조 선조, 광해군 조에는 새로운 도읍지로 거론될 만큼 풍수지리 적으로도 명당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다. 아울러 불과 반세기전까지만 해도 임진강을 연한 파주 땅은 개성과 서울을 잇는 경제의 중심지로 발전되었던 곳으로 비극적인 6.25전쟁만 없었더라면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번영된 고장이 되어있을 땅이다.

요약하면, '뛰어난 지역 발전의 잠재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외부요인에 의해 침체되었던 지역'이 바로 이제까지의 파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90년대 초 이데올로기의 퇴조와 함께 가속화된 개방화의 거센 물결은 이 땅을 더 이상 '침체된 곳'으로 머물게 하지 않았다.

남북관계의 개선과 함께 찾아온 92년도의 자유로 개통과 통일동산의 착공,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모토로라, 시그네텍스 등 첨단 산업이 입주되고 수도권 개발압력이 일산

신도시로부터 거세게 밀려오는 여건 속에서 '95년 민선지방자치와 '96년 시 승격으로 획기적인 지역발전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다양한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보다 많이 행정에 담겨지게 되었고 도시기본계획의 입안을 통해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는 지역개발을 진행시킴으로서 『은둔의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꿀 수 있는 好機를 맞게 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개발속도라면 머지 않은 장래에 이 땅은 도시화와 난 개발로 문화유적의 파손이 심각해 질 수 있는 개연성도 함께 지니게 되었다. 앞으로 임진강 유역은 21세기 통일조국의 중심지역으로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전원, 문화, 관광도시로 부흥할 것이 분명하다.

파주의 어제의 역사가 일시적으로 진보를 멈춘 침체국면이었다면 오늘은 새로운 여건 속에 逆動하는 대 변화의 물결에 휩싸여 있고, 파주의 희망찬 미래는 이러한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차분하게 21세기 문화, 정보화 사회를 준비해 나감으로써 이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 땅, 임진강에 대하여 어떤 비전을 갖고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할까? 이 글은 이 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고 바람직한 실천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 II. 파주의 정체성은 임진강에 있다

파주의 미래를 설계함에 있어 파주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지역발전의 매개체로 이용하는 문제는 아주 시급한 과제이다.

분단 반세기 동안에 형성된 접경지역의 부정적 이미지를 벗는 일은 아주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한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다.

따라서 올해 파주 문화, 예술 진흥조례 제정을 계기로 중, 장기문예진흥계획을 수립하여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장기적인 문화진흥 정책을 수행해 나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장기적인 프랜 속에서 체계적인 예산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파주만의 고유한 정체성은 먼저 파주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는 작업이 선행 되어야 한다.

파주는 원 삼국시대부터 임진강유역에 성곽, 토성 등의 전쟁 유물이 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산과 강의 절경마다 수많은 정자가 있었으나 전쟁으로 소실되거나 크게 훼손되어 있다. 이를 체계적으로 복원하고 읍곡, 황희, 성혼 선생과 같은 聖賢들의 유적을 성역화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유산들을 한자리에 모아 보존하고 시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시민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지역발전의 소재로 삼아 나가야 한다.



임진강 유역에는 구석기 유적들뿐이 아니라 삼국시대 성곽 유적이 많이 남아 있다. 이러한 문화유산들에 대하여 지표 조사를 실시하고 발굴해서 잘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임진강 유역에 전쟁박물관 같은 테마 박물관을 건립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이러한 문화적 유산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엘리트의 양성도 시급하다. 이러한 유형의 자원 못지 않게 임진강 일대에는 수많은 전설과 민요가 분포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무형문화재를 찾아 고증하고 학문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임진강의 적벽은 그 가치를 거론할 필요도 없이 큰 국가적 유산이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실태파악과 보존 대책을 정부에 건의하여 천연 기념물로 하루속히 지정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지역의 정체성은 지역내의 역사, 문화적 유산을 그 지역 구성원들의 의지를 모아 문화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 Ⅲ. 문화유산의 보고, 임진강

1999년 파주시와 한양대학교 박물관이 합동으로 파주시 일원의 역사와 문화유적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벌여 모두 247개소의 문화유적 분포도를 작성한 바 있다.

다음은 이 유적 분포도에 의하여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성동리 지역서부터 연천군과 경계를 이루는 주월리 지역까지 임진강 유역에 산재된 문화유산 중 대표적인 것을 정리한 자료다. (앞의 연번은 파주시 문화유적 분포지도 상의 일련번호다 : 이 번호는 앞으로 파주시 문화유산에 대한 고유번호로써 체계적인 조사 발굴과 답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별첨 문화유적도를 참고하기 바란다)

- 200 오두산성
- 68 장단 한수동 유물산포지,
- 65 장단 조랑진 보루
- 66 장단 삼거리 유물산포지
- 67 통일촌 유물산포지
- 63 이서 선정비
- 57 덕진산성
- 105 하완옹주와 정치달의 묘
- 106 황희영당
- 85 반구정
- 99 장산진, 래소정 터
- 96 장산리 구석기 유적
- 95 임진나루
- 240 울곡리 고분
- 241 울곡리 느티나무 1
- 242 울곡리 느티나무 2

보존과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유리한 조건을 갖고있는 셈이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유적들이 진지나 참호시설 등에 의해 파괴되고 있고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어있어 군사시설에 의한 훼손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6. 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 지역은 통일, 안보, 관광 측면에서 급격히 주목을 받게 되었고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연간 2백만 정도의 내, 외국인이 임진각과 민통선 지역을 다녀가고 있다. 또한 정부주도로 경의선 철로 연결, 국도 확, 포장 사업과 국도 37호선 확, 포장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도 임진강유역의 문화적 자원이 급격히 훼손될 수 있는 개연성을 지니고 있어 보존관리의 필요성을 더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임진강 유역의 역사, 문화적 자원을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는 군사시설 보호법 상 통제 보호구역으로 되어있는 이 지역 일대의 지표조사를 통하여 상세한 유물, 유적 및 천연기념물 분포도를 만들고 시급히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해 나가야 한다. 특히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절차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우선 파주시 향토 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 의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임진강유역의 역사, 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데 필요한 고증, 복원과 관리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한다. 아울러 장차 이 지역

일대에서 구상하게될 각종 개발사업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전통 문화의 보존과 이해라는 측면에서 우선 검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시민과 공직자가 하나가 되어 임진강 문화사랑 운동을 전개해 봄직하다.

## V. 나오면서

파주는 지금 사회 각 분야에 걸쳐 대변혁에 휩싸여 있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지난 98년 파주지역 연구를 끝낸 경기개발연구원과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을 연구중인 국토개발연구원, 그리고 UNDP의 주도로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가 실시한 비무장지대 생태연구를 필두로 경기도의 접경지역 개발계획수립과 파주시가 수립한 도시기본계획, 임진강 유역 관광개발계획을 비롯하여 각급 대학의 파주지역 연구는 그만큼 파주가 여러 분야에서 역동성을 지닌 미래 도시라고 하는 매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임진강 유역은 한때 '상실의 땅'이었으나 최근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21세기 통일조국의 중심지역으로 부상할 수 있는 '축복의 땅'으로 변화하고 있다. 시민들의 지역발전 열망은 대단히 높지만 지역개발 수요가 많다는 것은 개발비 부담 측면에서 오히려 체계적인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임진강의 문화유산을 수집하여 고증하고 복원하여 후세



들에게 물려주는 일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모두의 엄숙한 소명이다. 그러나 이 일은 열정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다.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학자와 관심을 갖고있는 관료집단, 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하여 각 분야에 걸친 세밀한 분석과 전략적 접근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파주는 도·농 복합도시의 기능을 조화롭게 발휘하면서 전원도시, 문화도시, 관광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장기 발전 구상이다. 이러한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이미 언급한 접경지역으로서의 어두운 이미지를 벗고 파주 본래의 정체성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임진강 유역의 방치된 문화유산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통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파주지역의 발전추세로 볼 때 임진강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통일의 열기가 무르익어 가는 지금이야말로 이 문제의 해결에 착수할 적기라고 본다.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맞아 우리가 꿈꾸는 파주의 모습은 자랑스런 이 땅의 문화유산을 잘 갖고 다듬어 수려한 전원 속에 문화, 예술이 뽐뽐히 살아 숨쉬는 고장이다.

21C 파주의 경쟁력은 문화다. 그리고 이 문화유산을 자본으로 하는 관광산업 육성이야말로 파주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는 명확하다. 이제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공직자나 시민 모두의 자각과 실천이 아닐까 한다.

## 파주의 젓줄인 임진강변 탐사를 마치고

파주시청 산악회장 안 상 훈

파주시의 젓줄이라 칭하는 임진강이지만 민간인 통제구역이라 그 동안 접근이 어려워 좀처럼 가까이 할 기회가 없었고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파주시민에게 엄청난 아픔과 시련을 안겨준 임진강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세히 살펴볼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금번 파주시청 산악회 주관으로 임진강변 탐사기행 계획을 수립하여 탐사에 이르게 되었다.

탐사계획을 수립하여 군부대에 협의를 해야하는 등의 어려움 끝에 탐사 일자가 확정되고 탐사에 참석할 희망자등 대상자를 선발하여 드디어 2000. 2. 18. 10:00시 파주시청 버스를 이용하여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24명을 태우고 파주시청을 출발하여 11:00시에 이번 탐사의 출발지점인 파주시 적성면 어유지2리와 연천군 백학면 삼화리 경계에 도착한

우리 탐사대원 전원은 버스에서 하차, 수려한 자연환경을 간직한 임진강변 모래사장에 도착하여 간단한 기념촬영을 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얼어붙은 임진강변 탐사를 시작하였다. 탐사 시작지점에서 약 200미터를 이동하니 얼음판 위에 자라한 마리가 기어가는 모습으로 얼어붙어 있었다(아마 동장군을 알잡아보고 이동하다가 추운 날씨를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동사한 것 같았다)

우리 탐사대원들은 꿈꿨던 얼음 위에 언제 내린 눈인지 모를 눈이 응달쪽은 녹지 않은 흰눈 위에 발자국과 뾰드득 뾰드득 소리를 남기며 임진강변을 살펴보니 임진강을 수호신으로 모시며 임진강변 주민들이 각자 소원성취를 기원하기 위하여 촛불과 떡, 과일, 포등 제사 음식을 차여 놓았던 흔적을 뒤로하고 탐사를 계속하는데 드디어 임진강 절경의 하나인 적벽이 신비한 자태를 자랑하듯이 우리들의 눈앞에 펼쳐졌다. 정말 기록이나 먼 거리에서나 보던 적벽을 가까운 곳에서 바라보면서 탐사대원 전원이 적벽의 신비스로움에 탄성을 자아내며 계속이어지는 절경에 피로함도 잠시 잊은 채 사진 촬영을 하면서 걷기를 계속하는 동안 12:20분경 점심식사 장소인 적성면 주월리 선착장 위에 도착하여 잠시 여정을 풀었다.

점심 준비에 동원된 대원들이 차려놓은 점심을 맛있게

먹고 13:30분에 우리 대원은 앞으로 펼쳐진 신비의 탐사 구간을 향하여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탐사구간중에 유난히 강변에 버들강아지와 각종 나무가 무성한 곳이 있었다.

그 나뭇가지에 각종비닐, 옷가지, 양수용 호스 등이 뒤엉켜 있는 것을 보니 지난여름(7월말부터 8월초) 내린 홍수가 얼마나 심각하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였으며 나도 모르게 몸서리가 쳐지고 수해의 악몽이 되살아 나는 것 같았으며 그런 광경을 보니 이렇게 엄청난 홍수 속에서도 인명 피해는 물론 농작물, 가축 등의 피해가 임진강변 수해흔적에 비하여 홍수의 피해는 생각보다 적었던 것 같다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수마의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발길을 재촉하여 다음 구간인 임진강변을 따라 오면서 주월리와 가월리 경계에서 구석기시대 유물들의 흔적을 찾아보면서 걷고 또 걷는 동안 적성면 구읍리 장남교까지 무사히 탐사대원 전원이 도착하였고 우리는 이곳에서 대원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우리들을 안내 할 병사를 기다렸다.

그 곳부터는 군부대 절대 통제구역으로 사병 2명의 안내를 받으며 교통호를 이용한 이동만이 가능한 지역이어서 긴 교통호 터널을 빠져나가는 동안, 과거 병영 생활이 떠올라 잠시 30여년 전으로 돌아가 추억에 잠기는 동안 어려움이



많은 교통호를 뒤로하고 다시 얼음판 위를 걸으며, 또다시 적벽의 아름다움과 신비함을 만끽하면서 탐사를 계속하는 동안 얼음판 위를 걷는 구간은 끝이 났고 오늘 탐사구간에서 처음 접하는 모래사장으로 형성된 사막과 같은 구간을 걷는데, 임진강의 8경중에 하나인 5경인 東坡에서 보는 달(월경, 당일은 陰曆 1월 14일 보름전날)인 둥근달이 인자한 모습으로 우리들의 머리 위에 모습을 서서히 들어내고 있었다.

종착 지점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라 대원들의 몸은 지칠 대로 지쳐있을 때 대원들에게 기쁜 낭보가 날아왔다. 시장님께서 임진강변탐사대원들의 노고를 치하하시며 탐사기행의 종착지인 파평면 장파리에서 저녁을 함께 하시며 격려하여 주시겠다고 하여 대원들 모두 기뻐하며 다시 지친 몸에 마지막 힘을 불어넣어 모래사장 위를 힘차게 걷는 도중 무심한 해는 넘어가고 어둠이 서서히 대지 위에 깔리고 둥근달은 아름다움과 인자함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지친 대원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자태를 하고 있었다.

우리 대원들은 탐사종료의 만족감과 아쉬움을 남기며 적성면 어유지2리에서 파평면 장파리 22km의 대단원의 탐사구간을 24명 전대원이 한사람의 낙오도 없이 끝마칠 수 있었으며 시장님이 마련하여 주신 저녁과 막걸리를 마시자 22km의 긴여정에서 쌓여진 피로가 봄눈 녹듯이 녹아 내렸으며 오늘의

탐사에서 보고 느낀 각 분야별 담당자들의 고견이 담긴 기행문을 기대하면서 임진강 탐사를 모두 맞히게 되었다.

이번 탐사를 통해 농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입장에서 검토해 본 바는 다음과 같다.

적성면 어유지2리~파평면 장파리 구간 22킬로미터 구간에는 임진강변 안에 농지가 없어서 농지와 연결하여 농지의 보전대책이나 농지로 확장하여 활용할 만한 고수부지가 없었으며 다만 탐사구간에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업용수)양수장이 있었는데 양질의 농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하여는 임진강으로 유입되는 축산폐수와 생활폐수를 정화할 수 있는 시설 설치가 절실히 요망된다고 하겠다.

## 아! 적벽(赤壁) 임진강의 봉우리어!

여성회관장 김 영 애

몇년전 독일의 라인강과 프랑스의 세느강을 보고 우리의 한강과 임진강만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시청공직자 산악회장님으로부터 임진강 탐사에 함께 동참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번 계획이 시청 산악회 주관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했다. 1년전 산악회원으로 가입해 전국의 명산을 서너번 다녀 온 터여서 이번 탐사도 꽤나 멋진 여행이 될 것이라 확신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응했다.

또한 파주시에서 처음 있는 임진강 탐사도 매력적이었지만 민간인이 들어가지 못하는 통제구역을 간다는 사실과 22km의 강줄기 도보 행군이 밤잠을 설치게 했다.

2000년 2월 18일 아침 아마추어 대원으로 이루어진 탐사 일정이 시작되었다. 오전 10시 시청을 출발했다.

차안에서 부시장님이 탐사 목적을 설명하셨다.

대자연의 홍수로 임진강은 우리를 슬프게도 했지만 그 고통만큼 어떻게 임진강을 이용하여 자원화 할 수 있는가?

첫째 접경지역특별지원법 발효에 앞서 접경지역내 부존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방안은 없는가?

둘째 임진강살리기운동의 일환으로 수질상태를 점검 환경보존 계획을 세우고

셋째 글로 전해 내려오는 임진강 문화(임진강 팔경등)에 대한 직접 확인으로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연구해 달라는 말씀을 듣고

황진이가 첫연인 양주사람 김경원을 떠나보내고 시련의 아픔으로 임진나루에서 눈물지으며 바라보았던 임진강의 애달픈 낭만은 사라지고 어떤 사명의식을 갖고 오늘의 여행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

1시간을 달려 10시 54분 연천 삼하리 삼하늬시터에 도착 적성면 울포리 경계로 옮겨 임진강가로 내려갔다.

그곳에서 다시 한번 부시장님의 탐사목적들을 듣고 새로운 각오로 기념사진을 찍고 탐사 도로행군이 시작되었다.

함경남도 마식령에서 발원 254km를 달려 한강과 만나는 임진강 줄기는 56km가 파주시와 접하고 있으며 30km가 개발가능지역이라고 했다.



그 중 오늘의 도보탐사는 울포리를 지나-가월리(비룡대교)-주월리-두지리-자작리-장좌리-장파리(리비교)에 이르는 22km라고 하니 꽤 먼 거리다.

나는 탐사 목적중 임진강 팔경에 대한 문화유산에 큰 기대가 갔다. 그도 그럴 것이 올 겨울 추위로 얼은 강변은 탁 티 이고 가끔씩 나르는 철새들의 울음은 마음의 평안과 업무로부터의 해방감을 안겨 주었으며 광활하고 긴 얼음판은 썰매 타기와 팽이돌리던 어린시절로 돌아가게 했기 때문이다. 절로 시 한수가 터져 나올 듯 했다. 하지만 임진강변도 별 수 없이 산업화에 밀려 여기저기 배갈의 흔적으로 파괴되었고 인간들의 무질서를 대표하는 쓰레기 잔해들로 눈살을 찌프리게 했다. 그러나 될 수 있는 한 그 모든 부정적인 것을 지우고 임진강 푸른물에 노젓는 뱃사공과 옛선인들의 학문과 강에 얹혀 있는 낭만만을 상상하기로 했다.

임진강 팔경시는 문산읍 장산리 강어귀에 내소정(來蘇亭)이라는 정자가 있었는데 이 정자는 세종대왕의 사위이자 연산군의 장인인 사지(仕止) 진승선(眞承善)선생이 건립하였다 한다. 이 분은 여러 벼슬을 거치고 영의정까지 올랐으며 거창부원군이 되어 퇴임하자 이곳에 정자를 짓고 임진강 푸른물이 굽이쳐 흐르는 강가에 나와 시와 낙시로 소일하며 여생을 보냈다 한다.

숙종때 호곡 남용익 선생이 이 정자에서 임진강 팔경시를 지었는데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임진강 팔경시는 다음과 같다.

- |                 |                 |
|-----------------|-----------------|
| ① 화석정의 봄        | ② 장암(張岩)의 낙시    |
| ③ 송암(松巖)의 맑은 구름 | ④ 장포(長浦)의 가랑비   |
| ⑤ 동파(東坡)의 달구경   | ⑥ 적벽(赤壁)뱃놀이     |
| ⑦ 동원(桐園)의 눈     | ⑧ 진사(津寺)의 새벽종이다 |

굽이굽이 마다 아름다운 절경을 노래한 임진강가의 풍경이라 하겠다.

과연 이 아름다운 절경을 볼 수 있을는지 사뭇 기대가 커지면서 나의 걸음마저 가벼워지는 듯 했다.

우리가 얼음강 바닥을 걸으면서 처음 만난 것은 적벽이었다.

거대한 숲가마에서 막 구워낸 듯한 정갈한 참숯이 빛을 내며 가지런히 쌓여 있는 풍경이 100m도 넘게 이어졌다.

햇빛에 반사되어 빛으로 이어지는 광경에 모두들 탄성을 질렀다. 적벽에서 떨어져 나온 결 있는 돌들은 세월에 마모되고 풍파에 시달렸어도 제 모습을 잃지 않은 채 우리를 맞이했다.

나도 그렇게 늙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발길을 서둘렀다.

다음으로는 굽이굽이마다 펼쳐진 자연 그대로의 거대한 아이스링크 실외 경기장이었다.

얼음 두께도 두께려니와 편편한 얼음 위는 어떠한 스케이트 날도 최상의 컨디션을 줄 것만 같았다. 갑자기 쇼팽의 야상곡이 광활한 아이스링크 경기장을 수놓으며 대원들의 썰매 타기 흥내가 피겨 스케이팅 선수로 변신되면서 춤추는 모습으로 비쳐진다.

아! 아름다운 순간이여!

또 다시 1시간 남짓 걸었을 때 쪽 뺨은 얼음 강둑위로 어설픈 불상이 눈에 들어온다.

누군가를 위해 어느 이름 없는 무속인이 임진강 신(神)에게 기원했을 자리였으리라.....

탐사 단장이신 부시장님께선 우리 대원들보다 훨씬 정력적으로 지적도에 지나온 자리를 표시해 가면서 임진강변을 살피셨다. 누구나 열심히 일하는 모습은 아름답다고 했으나 이날의 적극적인 단장님의 모습은 감동할 만큼 우리 모두에게 일깨움을 주셨다.

그리고 대원 모두가 놀라워했을 정도로 썩썩하셨다.

2시간쯤 걸었을 때 울포리 끝썰이 방어벽 강둑위로 산악회 전 총무 이영근대원과 현 총무 윤승현대원이 일행들을 위한 점심식사를 마련하고 있었다.

완벽한 식사 준비에 모든 대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돼지고기 삼겹살과 김치 특히 수경 재배한 상추와 각종 쌈, 고소한 순두부는 임진강 풍물의 한가지로 넣고 싶을 만큼 싱싱하고 청결한 그 자체였다.

거기에 동동주 한잔씩 나누는 정겨움은 따듯한 임진강 바람과 어우러져 최상의 마음의 평안이 주어졌다.

모두들 고마워하며 40분의 점심시간을 갖고 13:30분 다시 탐사의 발길을 재촉했다.

여기서부터는 수해를 연상하지 않을 수 없는 현상이 계속되었다. 강 아래로부터 강둑까지는 수십길이 넘는 깊이였는데 그 위로 홍수의 잔해물인 각종 쓰레기 더미가 나무가 지나 갈대 끝에 매달려 넘실 되었다.

우리는 이곳을 지나면서 슬픔의 현장을 행위예술무대로 승화시켜 즉석 연극인으로 변신 연극이 끝난 후 갖는 종강 파티의 일환으로 사진을 찍었다.

높은 나무가지 사이로 홍수의 잔해와 얹혀있는 까치집이 안스러워 한동안 할말을 모두 잊은 채.....

수해피해자들을 모두 초청하여 이현장을 견학시키면 결코 인재가 아닌 대자연이 준 어쩔 수 없는 재해임을 확실하고도 뼈저리게 알게 해줄 것만 같았다. 그래서 불신으로 골이 깊어진 민·관의 신뢰를 100% 회복시켜 주리란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우리는 또 다시 걸었다. 걸기 4시간 아마추어 대원들은 조금씩 힘들어 했다. 하지만 강변 위의 눈길은 우리들을 매혹시켰으며 가월리 비룡대교가 눈에 들어오기전 적벽은 또 한차례 우리들을 감동시켰다.

나는 이번 적벽은 자수정으로 생각되었다.

혹시 저속에 보석은 없을까? 저 떨어져 나온 돌들을 세공하여 상품화 할 수는 없을까? 너무도 아름답기 때문이었다.

가월리를 지나면서 주월리에 다다랐을 때 적벽이 또 나타났다. 이번 적벽은 보석 병풍처럼 둥글고 넓고 길게 둘러쳐져 있어 그 옛날 숙종때 호곡 남용익선생이 임진강 팔경시중 적벽 배놀이는 이곳을 지나면서 지은 것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절경이었다.

그 시는 이러하다.

적벽에 둘러싸인 강물에 배 띄우니  
소선(蘇仙)가신 후 멧은 아직 남았도다.  
부서지는 파도에 달빛도 좋은 이 밤  
황강의 가을이 필요가 없네.

긴 강줄기는 아직 군사분계선인 제한구역으로 남과북의 이념의 벽을 넘지 못한 채 자갈과 모래만이 마모되고 흘러진 채로 세월의 길이만큼 슬픔을 간직하고 있었다.

남북분단의 슬픔을 잠깐 느끼고 있을 때 단장님을 비롯한 기획팀이 삼국시대때 임진강을 도하하는 적을 방어하는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는 육계토성(六溪土城)과 구석기시대 유물이 발견된 장소로 발길을 옮기셨다.

그러나 탐사결과 육계토성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간신히 터만 눈에 띄었으며 구석기 시대 유물발견장소는 뜻말만이 남아 우리를 반겼다.

이렇듯 약간의 허탈과 함께 임진강 탐사가 끝나가고 있었다.

7시간의 도보행군을 하면서 임진강 팔경은 다 접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 옛날엔 강 양언덕에 깎아지른 듯 아름다운 석벽을 만들어 놓고 굽이굽이마다 정자 하나씩을 앉힌 것이 30여개에 이르렀으며 이곳에서 파주 문향이 시작되었다 한다.

지금은 현 시대에 맞게 굽이굽이마다 임진강 팔경시를 중심으로 테마별 주제로 개발한다면 어떨까?

예를 들면 임진강 팔경시의 첫 번째인 화석정의 찾아든 봄을 기획 그 일대를 봄이 물씬 스민 공원을 만드는 것이다.

팔경시에는 사계절이 다 들어 있어 년중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으며 거기에 시장님의 구상인 자전거 도로만 개발될 수 있다면 자동차 없는 전용도로로 관광지의 명승지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아득한 옛날 한 시대를 청청히 살다가신 옛 선인들의 얼을 가득 담고 있는 임진강변을 걸으면서 그분들의 정신을 기를 수 있는 꿈의 공원을 그려보았다.

독일의 라인강보다 프랑스의 세느강보다 훨씬 운치가 있고 삶과 낭만이 있었던 우리들의 강

파주의 자랑과 문학을 모두 간직하고 있는 강

이제는 남북분단의 아픔을 말없이 삭히고 있는 강

이 강가에 생명을 불어넣고 싶다.

또 다시 옛 명성을 찾아주고 싶다.

고달픈 이들의 힘이 되고 길이 되게 하고 싶다.

이 강가에서 현대인들에게 여유 있는 삶의 멋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싶다. 일곱시간의 탐사가 끝나고 오후 6시 30분 장파리에 도착했을 때 서산의 해가 강가의 어둠과 함께 오늘 하루 가졌던 슬픔과 약간의 우울을 잊게 했다. 더 한층 우리 모두를 감동시킨 일은 우리들의 탐사를 격려하시러 시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일이었다.

맛있는 저녁식사와 동동주도 한잔씩 사주시고 수고를 치하해 주셨다. 모두 즐거워했다.

이번 탐사에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뿌리깊은 나무 역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아마추어 대원들에게도 깊은 우정을 느끼면서 이 글을 마친다.

## 파주의 보배인 임진강을 탐사하고

환경지도담당 안 배 옥

임진강 수계는 총연장 254km의 직할하천으로 함경남도 덕원군 마식령산맥 남계에서 발원, 강원도 지역과 황해도 금산군을 거쳐 경기도 연천 지역으로 통과 이곳에서 임진강 제1의 지천인 한탄강과 합류 파주시를 통과 하게되며 임진강이 파주시를 흐르는 과정에 상류지역에서는 비무장지대 내의 장단지역에서 흘러내리는 사미천의 청정수와 간파천, 설마천, 눌노천, 두포천, 동문천, 문산천, 만우천 등 중·소규모의 하천수가 유입 김포반도 지점에서 한강과 합류되어 강화만으로 빠져나간다.

수질환경 실태는 탐사시기가 동절기 갈수기로 탐사구간이 결빙된 상태와 탐사구간이 임진강의 중류지역 하부구간으로 임진강 본류의 오염실태와 지천에서의 오염수가 유입되는 사실을 정확하게는 파악이 힘들었다. 다만 얼어붙지 않은



일부 구간에서의 이끼가 낀 강물, 그 물속의 탁도와 부유물질의 상태로 보아 임진강에는 분명 오폐수가 유입되며 강물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정수가 흐르는 곳’도 있는데, 임진강의 상류지역 즉 발원지에서부터 비무장지대를 흐르는 구간에는 인가나 공장이 전무한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흐르는 강물이기에 말 그대로 1급 청정수가 흐르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의 오염 원인은 임진강 제1의 지천인 한탄강이 유입되는 연천군 전곡읍의 일명 합수머리라는 지점에서 부터이다.

이 지점에 가면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을 할 수 있다. 이 지점은 비무장지대에서부터 흐르는 임진강 본류와 철원지역에서 발원 유입되는 한탄강이 만나는 지점으로 물이 합류되는 지점에는 마치 그림물감으로 칠을 한 것처럼 푸른색으로 보인다.

또 한가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삼각형 지점에 임진강의 본류가 흐르는 강변에는 수많은 새떼가 먹이를 쫓고 있는가 하면 한탄강 쪽의 물이 유입되는 쪽은 먹이를 쫓는 새들의 모습을 볼 수 없다. 강물이 오염된 현장을 쉽게 증명할 수 있는 장소이다.

‘임진강 제1지천인 한탄강의 심각한 오염’은 크게 두가지의 갈래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한탄강 본류다. 한탄강의 발원 상류지점에는 역시 비무장 지대에서의 청정수가 흘러내린다.

흐르는 과정에서 철원지역의 차탄천과 포천군의 일동·이동지역의 위락시설 식품업소에서 배출되는 생활오수, 포천읍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 축산폐수, 공장폐수 등이 포천천과 영평천을 통하여 한탄강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오·폐수의 배출 농도가 가장 높으며 배출량이 많은 동두천지역의 신천이다. 양주군 은현면과 동두천 인근의 피혁공장과 나염공장에서 배출되는 악성폐수가 신천을 통하여 '96년의 경우 일일 158톤까지 방류되는 것으로 조사된바 있다.

'96년도에 한탄강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사건도 그 당시 일부 몰지각한 사업주가 우기를 이용 공장폐수를 무단 방류하였기 때문이다.

‘임진강 중류 이하 지점에서의 오염’ 실태를 보면 다행이도 우리시 관내의 배출업소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로 인한 상수원 오염의 실태는 크게 심각한 문제의 정도는 아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내의 오염원 배출 실태로는 적성면의 간파천과 설마천이 임진강으로 유입되고 있다. 간파천과 설마천 주변에는 소규모의 축산농가가 산재하여 있다. 이곳 축산

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가 적정처리 되어 방류되어야 하나 법규제 미만의 축산농가에서 적정처리 되지 아니하고 방류되는 축산폐수 또한 오염원으로 되고 있다.

‘상수원 하류지역도 철저히 관리’ 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상수원 보호구역 즉, 금과 취수장 하류지점에 배출 유입되는 생활오수, 축산폐수, 공장폐수 또한 상수원의 오염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시 구역내의 임진강은 서해와 가까워 월2회 해류에 의한 영향을 받는다. 이 해류의 영향은 상수원 보호구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상수원 보호구역 하류지점에서 임진강으로 유입되는 오·폐수가 취수장까지 밀려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문산 정수장의 침전지를 점검 또는 청소시 바다에서 서식하는 갯지렁이가 조수간만 시 밀려 올라와 취수 시 유입되는 것이다.

따라서 ‘임진강을 살리고자 하면 전체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앞에서 기술한바와 같이 임진강의 오염원으로 임진강 상류지역의 시·군에서의 원인 뿐만은 아니다. 우리시 관내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폐수도 임진강을 오염케하며 또한 우리의 식수원인 취수 원수도 오염케 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임진강을 살리기 위하여 그간 중앙 정부의 지원과 임진강정화대책 본부의 활동으로 상류지역의 악성폐수배출업소에 대하여는 많은 정비와 이전이 추진되고 있으나 앞으로도 인근 시·군과의 행정협의 및 다각적인 노력으로 배출업소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이며, 또한 우리 시에서도 임진강으로 유입되는 지천 수변지역에 대하여는 정밀 조사를 실시하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며 임진강 수질오염 실태에 대한 탐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 임진강의 현주소와 개발방향

건설과 하천담당 서 상 호

금번 2월 18일 임진강탐사단 중에서 내가 맡은 분야는 제방등 하천관리 측면에서 현 실상을 자세히 살펴보는 임무였다.

임진강 강변 도보탐사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현 축조제방 상단 약 1m까지 '99지난 수해 흔적이 역력하였으며 당시 집중호우 상태가 어떠했는지 가히 짐작이 가고도 남았다.

줄줄이 이어지는 자연석벽이 오랜 세월을 거쳐 무단한 인내와 침묵을 지켜온 흔적과 중간 중간 퇴적되어 둔치로 방치된 곳에 인간에게는 아무 보탬도 없이 무성한 수목으로 어지럽게 엉켜 있었다.

임진강을 천혜의 자원으로 화장하기에는 너무 지쳐있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이번 탐사의 결과로 파주시 젖줄인 임진강을 살리기 위한 몇가지 소견을 피력하면

첫째 강으로서의 이름대로 우선 일년내내(갈수기, 우기 관계없이) 물이 항상 담수와 흐름이 연속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임진강 수계에 유입되는(지방2급, 소하천)지류하천에 맑은 물이 합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임진강을 형성하고 있는 제방에 일정거리별 국도 37호에서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접속도로를 개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파주시민의 식수원 임진강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정 명 기

이번 임진강 도보탐사기행은 국토자원의 효율적관리 및 환경오염 실태를 직접 기행하며 눈으로 확인하였다는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

임진강은 예로부터 지켜져온 소중한 우리국토의 자원이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면에서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로서 이번 탐사기행을 통해 얻은 의미는 효율적인 수질관리 및 환경오염 실태확인라는 점이다.

첫 번째 현재 임진강은 비교적 수질이 상수원 원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수질오염사고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다. 주변에서 나오는 각종 생활쓰레기들은 이번 탐사에서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 국토의 효율적관리 측면에서 환경오염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범위안에서 청소년 신체수련장, 극기훈련코스, 임진강 탐사기행 코스개발 등 아름다운 국토자원을 최대한 이용한 자원개발이 부족한 점이다.

세 번째 장마철 집중호우시 범람하는 강물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강은 소중한 자원이지만 최근에 겪었던 것처럼 집중호우시에는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큰 재앙으로도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호우대책을 검토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된다.

이번 탐사로 공직자로서 수질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국토자원으로 이용하고 환경을 보존 해야되며, 훼손된 국토는 다시 되돌리기가 어렵다. 그나마 우리시의 젖줄인 임진강은 자원개발 여지도 많고 환경오염도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은 편이다.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지켜나가야 하는 것은 우리의 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좀더 임진강에 대하여 국토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아야 되겠다.



## 임진강의 자원화 가능성에 대하여

기획실 권 예 자

이번 임진강 탐사는 내게 많은 느낌을 주었다. 먼저 임진강 자원의 활용에 따른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강의 수심이 얕고 침적물이 많아 준설이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적벽의 규모가 작고 연속적으로 펼쳐있지 않아 한눈에 들어오지 않으므로 인접하여 보지 않으면 느낌을 극대화시킬 수 없다는 점이다.

구간중 군부대 협의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판단되며 선사유적지 및 주변 성벽 등은 제대로 보존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연천 전곡리 유적지의 유명세로 주변정비와 현장개발 및 학술적 노력 없이는 관광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내 나름대로 개발예측사업을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소형박물관 운영

선사유적지의 보존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유적발굴지에

소형 박물관 또는 유물관등을 설치하여 교육적으로 활용 가능토록 세계나비전, 곤충전 등을 함께 추진하여 학습장으로 운영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 번지점프

절벽을 이용한 번지점프로 수익사업을 해보는 방안이며 주월리 방향의 도로가 절벽근처까지 포장되어 있으므로 교통은 편리할 것으로 판단되나, 일반적으로 사람이 추락할 경우 진동에 의해 절벽에 충돌할 위험이 있으므로 구간의 설정이나 시설물 설치장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적벽 사이에 흔들다리 설치

적벽관광을 위한 배를 띄울 경우 선착장주변의 양 적벽 사이에 흔들다리를 설치하여 관광동기를 부여하고 명소로 개발이 가능하다.

### 관광라인 개발

임진강 절경, 감악산, 장단콩(음식점 군락형성), 임진강 폭포어장, 화석정 등 인근 관광지를 활용하여 유익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관광라인 개발이 필요하다.

※ 리비교~전진교 절벽관광, 화석정 건너편 모래사장의 쉼터 또는 나룻배운영 등

리비교~전진교 사이 야외 수영장 운영(다음 탐사 코스에 포함된 구역임)

## 유람선

수심이 얕아 준설 및 강폭 정비 없이는 불가능 특히 구간 중 위치한 다리의 받침대 폭이 좁아 장거리 유람선은 절대로 띄울 수 없다고 본다.

## 모터보트, 수상스키, 요트 등

젊은 층에 어필할 수 있고 운행이 가능하나 역시 준설이 앞서야 시원하게 운행할 수 있을 것이며 속도가 빨라 적벽 관광에는 부적합하고 인근 휴양시설이 갖추어지면 젊은 층의 유치에는 효과적일 것 같다.

## 나룻배

유람선은 겨울에도 커피숍 등으로 운영전환이 가능하나, 나룻배는 동절기 운영이 어려움으로 긴 거리가 요구되지 않으면서도 적벽 관광에 합리적이며 1일 4회~6회 정도 나룻배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나룻배를 황포 돛대나 소규모의 해적선 등 특별한 모양으로 설정하여 배 모양만으로도 관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거나 관광객이 직접 노를 젓는 소형 나룻배 및 소형보트 운영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 뗏 목

나룻배의 장점을 공유하나 균형유지가 어렵고 난간이 없어 관광장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음

## 빙벽타기

일정구간의 절벽에 인공빙벽을 설치하여 사용료를 받는 방안으로 절벽의 낙석 가능성이 사전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동절기 기온이 높아 빙벽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 낚시대회

일정구간을 막아 낚시터로 운영하지 않으면 사용료를 받기가 힘들며 어량이 풍부한 구역에서 시단위 낚시대회 및 대회종료 후 치어방류등의 행사 동행 추진으로 지역홍보를 실시하고 인근에 연천군 운영 낚시터가 있고 임진강 전구간이 무료낚시가 가능하므로 사용료를 납부 받는 낚시터로 운영하려면 특별한 이벤트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싸이클 도로

적벽 아래로 싸이클 도로를 설치하여 적벽 관광을 유도하는 방안이나 도로설치 예산 및 군협회가 문제이나 추진시에는 싸이클 도로에 도보라인도 함께 설치하여 일반관광객이 싸이클의 지장 없이 관광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을 것이다.



## 카페촌 형성

군데군데 휴양시설이 없으면 관광지로 유명세를 타기는 어려울 것으로 가능한 한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고 지역 주민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강변위락시설이 필요(어유지리, 울포리경계 소폭포주변등)하다.

관광과 더불어 여유를 가지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식사 및 식수, 화장실 등 시간을 지속시켜 하루를 임진강 주변에 묶어둘 수 있는 모티브가 있어야 하는데, 군부대에서 운영하는 회관(백마회관) 처럼 주변 레스토랑 등을 군부대에서 운영하여 타 위락시설과 차별화 시키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임진강을 개발 명목아래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자연보존에 초점을 맞추되 임진강 및 인근 관광지에 대한 전국적인 홍보필요(6시 내고향 등)가 있으며 군부대와 지속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군협의 하상준설의 선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임진강의 관광지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판단되며 이번 탐사가 이런 의미에서 매우 뜻 깊은 여행이 되었다.

## 이수웁이 남는 여행 임진강 탐사를 마치고

문화체육과 이호병·이성근

임진강 탐사계획을 통보받고 관광업무 담당자로서 참여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지역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과 아름다운 임진강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설레었다.

탐사전 임진강 주변 지역의 선사유적지도 찾아볼 겸 문화유적지도와 임진강 8경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고 버스에 올랐다.

버스로 연천과 파주의 경계지점에 도착해 강가에 내려서 부시장님으로부터 탐사목적에 대한 사항을 설명을 듣고 간단하게 사진촬영을 마친후 탐사에 들어갔다.

강은 뽕뽕 얼어있었고 우리 일행은 강을 타고 걷기 시작

했다. 강 주변에는 '99년 수해로 곳곳마다 비닐이나 수해 쓰레기가 나무가지에 폐비닐, 옷가지 등이 걸려 있어 마치 성황당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생각하기도 싫은 지난 수해의 악몽을 되살아났고 자연의 힘 앞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초라한지를 새삼 느끼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또 한편으로 군부대에서 유실된 지뢰등 폭발물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 탐사의 의미가 처음 생각이상으로 더욱 커지는 것이었다.

강사를 따라 걸으니 어느 한곳도 그냥 지나칠 수 없을 정도로 경치 좋은 곳이 많았다. 적벽, 굽이쳐 흐르는 강과 어우러진 넓은 들판과 아지랑이, 수석수집가가 아니라도 예쁜 돌들이 널려있는 강가, 뽕뽕 열은 강가위로 아무도 밟지 않은 눈위를 눈부시도록 쏟아지는 햇살을 받으며 걷는 쾌감, 임진강의 모래벌에서 바지락을 주워담던 어릴적 아련한 기억 등...

탄성을 연발하고 강주위를 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걷다가 점심을 먹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순두부와 삼겹살구이, 상추, 고추, 씀바귀 등 모든 쌈과 더불어 하는 반주는 모든 세상 근심사를 잊기에 충분했다. 따뜻한 햇빛과 포만감은 나 자신을 순간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를 다 잊고 잠시 무릉도원에 갖다 놓았다.

주월리쯤에 이르러 임진강 8경중의 하나인 적벽을 보게 되었다. 각진 돌로 쌓은 듯한 형세는 오랜 세월동안 풍수에 그 일면에 사라졌을 듯도 하지만 가히 8경이라 불릴 수 있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틸교 주변의 자연발생유원지에는 한겨울이라 그런지 찾는 사람이 없었고 반대편 연천쪽에 몇몇 사람이 주변의 풍경을 감상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가월리쯤에 이르러서는 가월리 선사유적지와 육계토성을 확인해 보기 위해 부시장님과 몇몇 일행은 마을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선사유적지를 확인하였을 때 이 곳이 선사유적지가 발굴된 것임을 알리는 안내판이 있을 뿐 그것마저 없었다면 이곳이 선사유적지임을 알 수 있는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었다. 육계토성 또한 바깥쪽으로 새 돌담을 쌓아 쉽게 확인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았다.

선사유적지에 대한 아쉬움을 남기고 다시 강가로 향했다. 오는 도중 강 주변의 도로개설과 강가의 이곳 저곳 파헤쳐져 있는 것을 보니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천혜자원을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일면 들었다.

강중간에 모래사이로 철새들이 오랜만의 인기척에 놀라



후드득 강가 건너편 쪽으로 날아올라 우리를 반기는 듯 보였다.

반짝이는 강물에 서서히 석양이 비치기 시작했고 이제 다리가 아파오기 시작하였다. 거의 20km를 걷지 않았나 싶다. 날이 어두워지고 있어 탐사를 마치기로 했다.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탐사를 마치지 못한 부분까지도 돌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신비하고 무궁무진한 아름다운 임진강을 이대로 보존하는 것도 좋지만 일부분만이라도 개발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변의 문화유적지와 임진리의 장어구이, 매운탕집과 장파리의 순두부집, 두지리의 매운탕집등 먹거리와 연계하여 1, 3, 5, 7, 10km의 답사코스를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자신의 건강상태에 맞춰 산책을 통한 건강증진, 문화유적지 탐방, 먹거리 여행 등 가재잡고 도랑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 본다.

또 화석정을 기점으로 상류, 통일전망대의 하류도 연결하는 돛단배 크루우즈(CRUSE)를 운영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도보로 탐사하는 것과 별다른 맛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탐사는 비록 임진강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많은 느낌을 가져다 준 그런 행사였다.

## TBN(대구교통방송)뉴스 인터뷰

2000. 2. 21 (월)

### ▶ 사회자

“전국연결 궁금합니다”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는 우수행정, 화제인물, 정보, 미담 등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진강탐사를 실시한 파주소식입니다. 파주시청 이창우 부시장과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 ▶ 사회자

파주시에서는 최근에 임진강탐사 기행단을 만들어서 임진강 답사를 실시했다고 들었거든요. 소개 좀 해주십시오.

### ▷ 부시장

네, 우선 조금 소개를 드리면요, 임진강이 254키로가 되는 큰 강입니다.

그리고 한강이 481키로가 되는 건데, 이것이 같이 만나는

꼭지점에 저희 파주시가 위치하고 있어요. 가장 하류지역에 있죠. 임진강은 굉장히 긴 강으로 돼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저희 파주시에 연한 임진강거리가 한 62키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하류지역이 돼서 수해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우리 지역에 그렇게 어려움을 끼쳐주는 것만이 아니고, 임진강은 파주시의 상수원으로 말 그대로 젖줄이 되는 거죠. 파주의 젖줄인 임진강을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보살피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금년도 2000년에 임진각에서 큰 새 천년행사도 했었어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한번 임진강 살리기 운동을 연계했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임진강이 죽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보존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금년도에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강이라든가 하천, 산의 자연환경을 조사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임진강도 실제 접근해서 봐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 ▶ 사회자

그래서 답사를 시작하셨군요.

#### ▷ 부시장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접경지역 지원법이 금년도에 시행되게 됩니다.

임진강은 전지역이 접경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접경지역지원법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좋겠는가하는 자료를 확보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 ▶ 사회자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군요.

임진강을 살리자,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단순히 오염된 수질을 회복하자, 이런 것만은 아니겠죠?

#### ▷ 부시장

그런 것만은 아니고 보존가치 면에서, 또한 임진강에서 어떠한 경영수익이 생길 수 있겠는가 그런 경제성, 통일안보 관광자원은 어떤 것이 있겠는가, 이 곳은 옛날 삼국시대부터 국경을 이루고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많은 역사적 유적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 지역이 통제를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확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관계되는 부대 등의 안내를 받으면서 역사적 기록을 다시 확인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친근감도 들고요.

#### ▶ 사회자

그렇군요.



## ▶ 사회자

한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요, 개발을 하다보면 더 망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대비책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 ▷ 부시장

망가지는 개발이 아니라 이 지역은 현재 나름대로 잘 보존되어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픔도 함께 했다는 얘기가 되죠. 임진강은 민간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잘 보존됐다 라는 측면으로 보면 굉장히 잘됐다고 하겠지만 그 동안 잘 접근이 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 ▶ 사회자

그렇군요.

## ▷ 부시장

그래서 수질이라든가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물론 잘 보존하여야 하겠고, 더 이상 악화돼서는 안 되겠지만, 점경지역지원법이라는 자체가 개발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다른 지역보다 개발이 상대적으로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현재를 보존하고 상대적인 불이익에 대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지 적극적인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은 아니니까 그렇게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 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주변경치가 참 좋겠습니다. 잘 보존이 되고요. 답사결과는 어떻습니까?

## ▷ 부시장

그러니까 우선 인간이 얼마만큼 자연환경에 피해를 주느냐? 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나 하면요, 아주 상류지역에 가면 민가가 있습니다. 민가들도 있었고 조그맣게 작은 시골 도시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지역하고 현재 접근이 덜된 지역은 차이가 분명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 ▶ 사회자

작은 시골마을인데도 차이가 있군요.

## ▷ 부시장

그런 게 있고 전혀 접근이 안 된 지역은 나름대로 잘 보존돼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어느 한쪽에선 저희가 하도 수해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적으로 났었다는 자체가 어느 면으로는 우리한테 재난을 줄 수 있는 하천이 그 동안 전혀 저희들이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治水나利水적인 측면에선 나름대로 걱정이 되더라구요.

## ▶ 사회자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임진강탐사단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 ▷ 부시장

저희가 탐사단이 만들어진 건 처음인데요 다만 우리지역에 그러한 좋은 임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바로 근접해서 보지 못했다는 것이 우선 저희들 마음을 움직이게 한거죠. 한번 우리가 봐야 어떻게 아낀다든지, 어떻게 보호한다든지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한겁니다. 그래서 임진강이 지금보다는 더 나빠져서는 안 된다는 데 우선 의견을 같이 하고 그런 사람들끼리 같이 모인 것입니다.

## ▶ 사회자

앞으로도 임진강탐사가 계속되는 겁니까?

## ▷ 부시장

여름철엔 지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시기적으로 가능하다면 부분적으로라도 계속해야 될 것 같고, 환경단체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속적으로 잘 추진되리라 생각합니다.

## ▶ 사회자

네, 지난여름에 수해를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복구가 많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 부시장

네, 수해복구는 다 됐습니다마는 임지적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한강과 임진강의 꼭지점이 되는 최 하구이기 때문에 상류지역에 치수사업이 잘 된다는 건 바로 하류지역에 홍수를 빨리 도달시킬 수 있다는 점하고, 한강과 임진강하류를 임의대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거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 사회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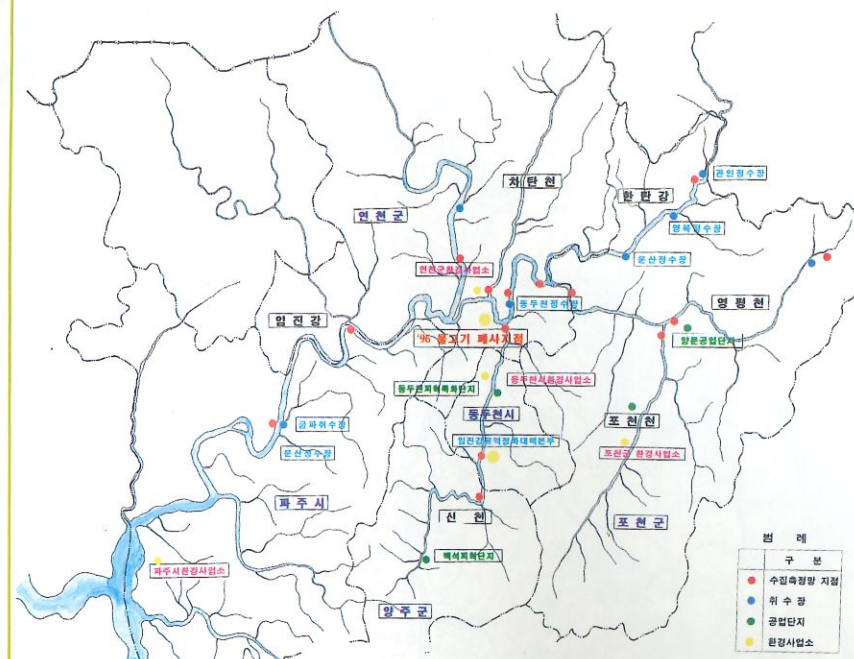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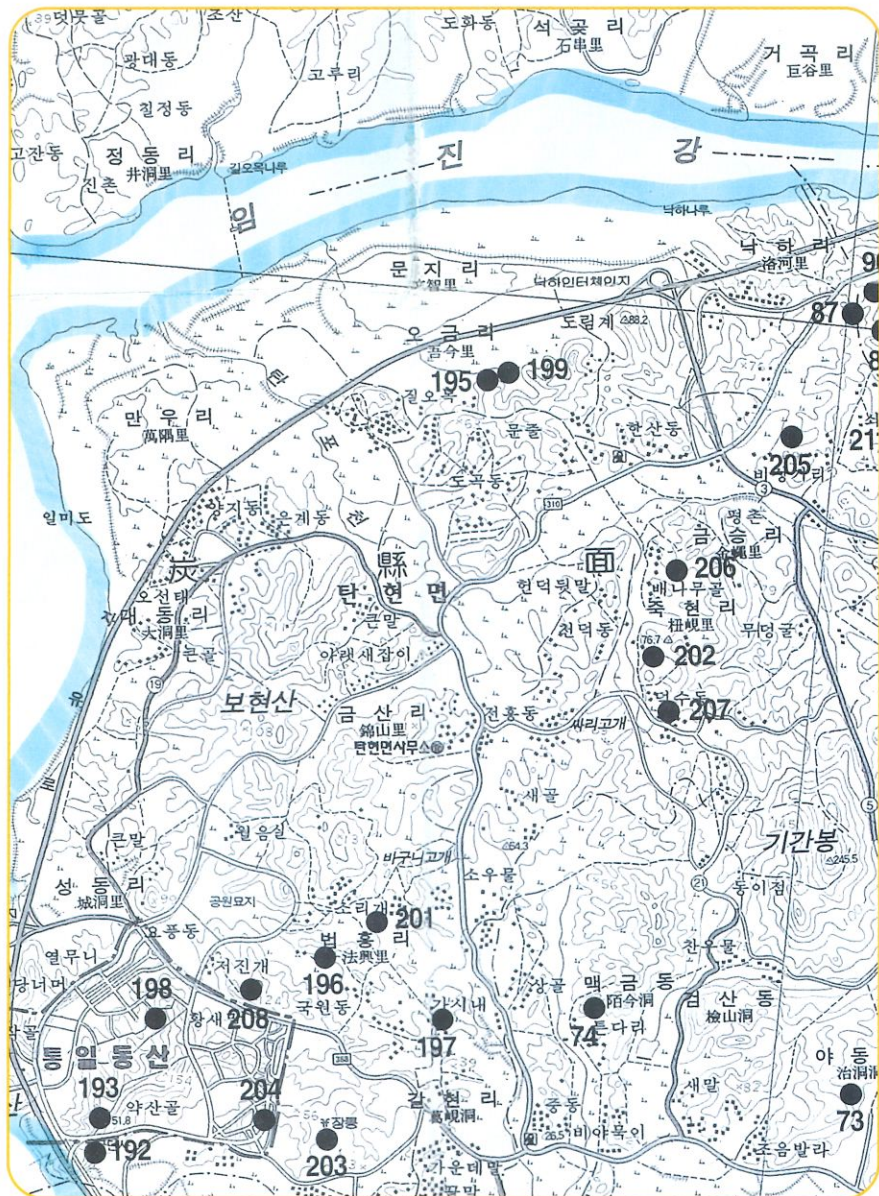
臨津江 탐사  
그후...





임진강유역 개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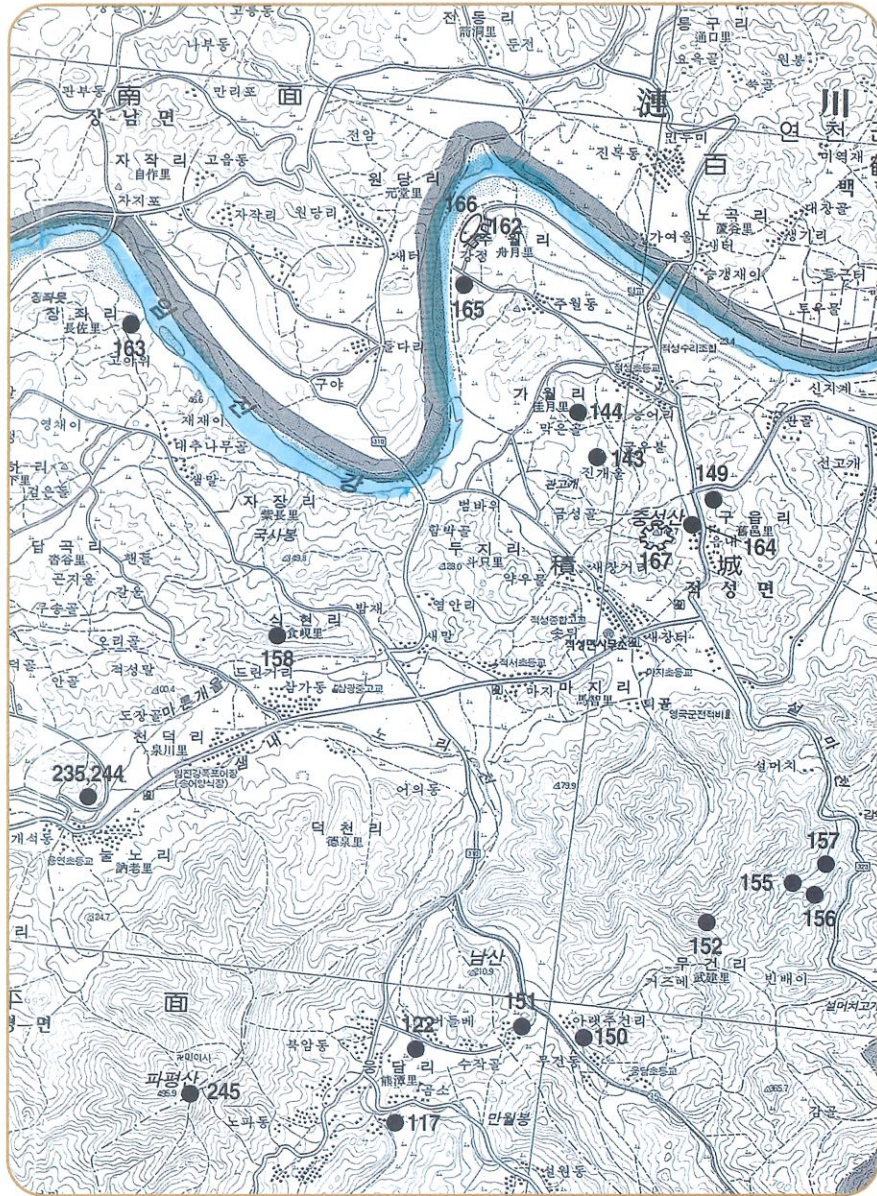


임진강유역 문화유적 분포도 |



임진강유역 문화유적 분포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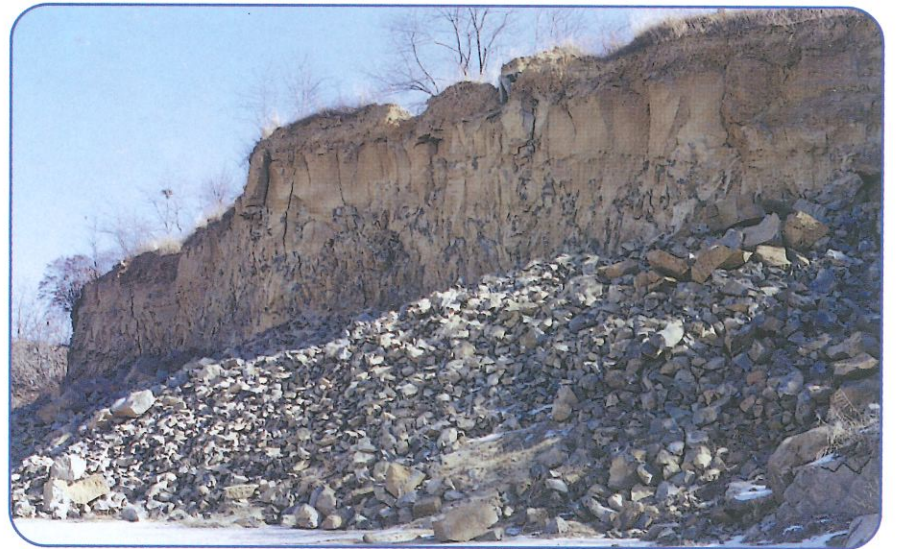




임진강유역 문화유적 분포도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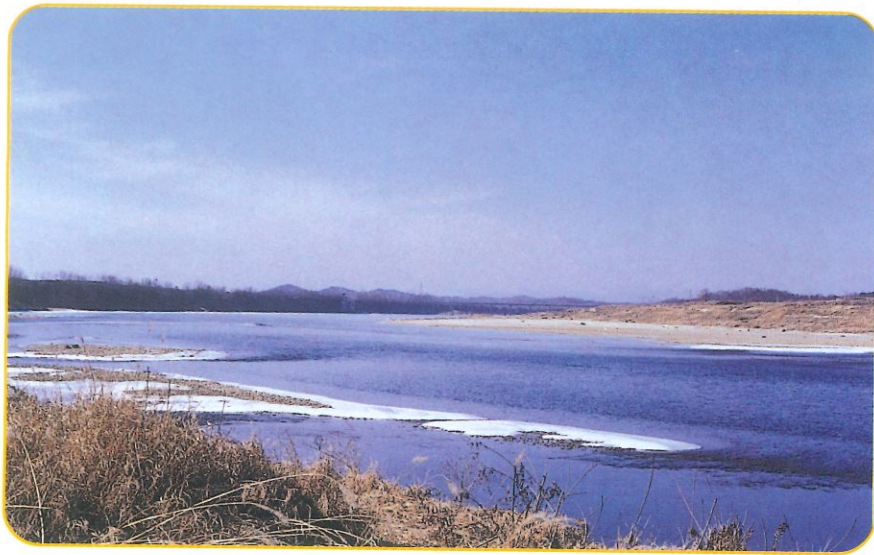


탐사를 시작하면서 다함께...



울포리 적벽





울포리 여울목에서 바라본 전경



'99 수마의 흔적 (울포리)



가일리 겨울적벽



적벽의 신비로움에 감탄하며...





기나긴 가월리의 적벽



기나긴 가월리의 적벽



가월리의 신비로운 적벽 전경



가월리의 신비로운 적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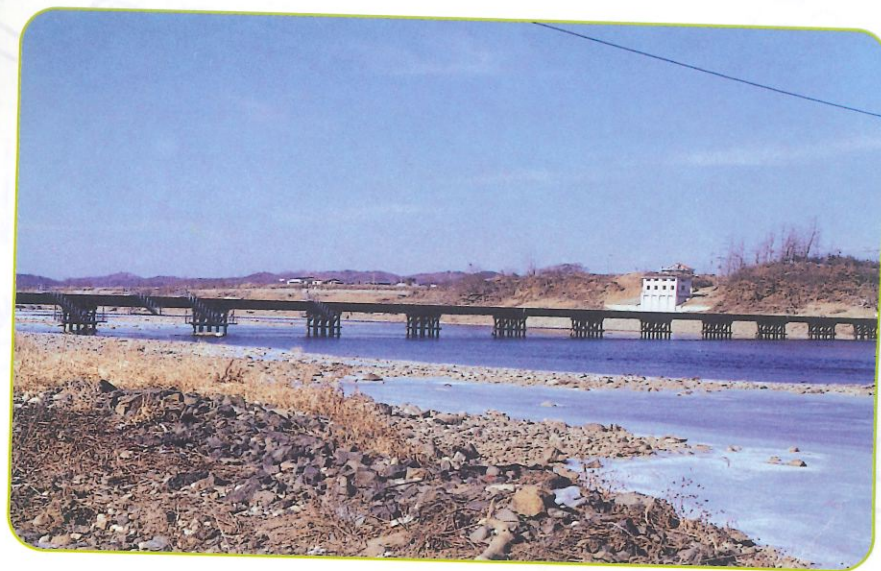




적벽을 오르는 사다리 (가월리)



농업용 취수장 (비룡교 위)



가월리 톨교 (현, 미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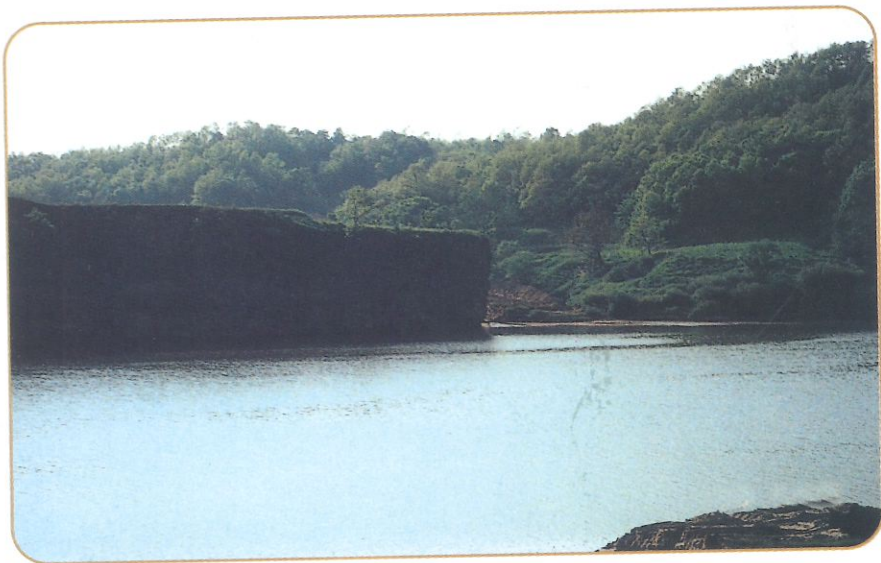


비룡교와 톨교가 함께한 전경





주월리에서 바라본 적벽



주월리에서 바라본 적벽



연천에서 주월을 바라본 적벽



연천에서 주월을 바라본 적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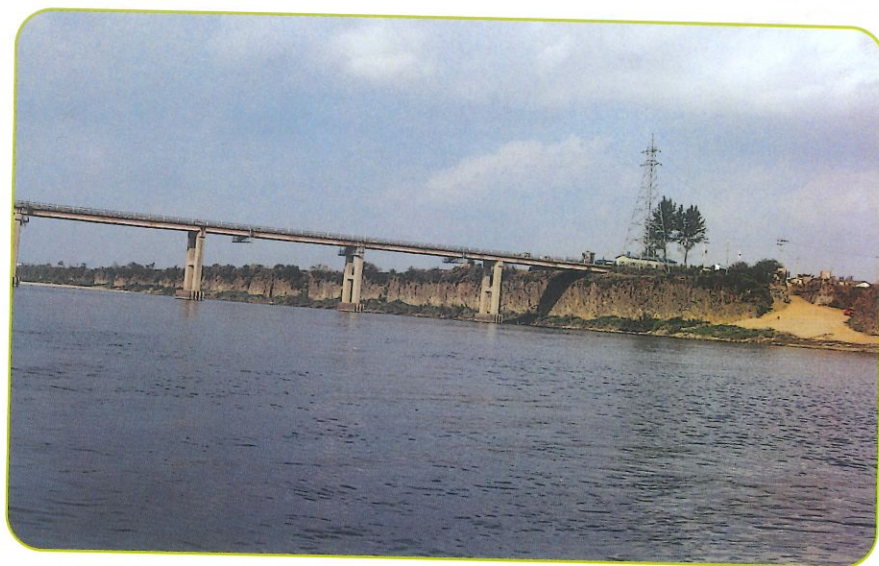




틸교 아래에서 바라본 적벽



주월리에서 어유지리까지 이어지는 적벽



리비교와 적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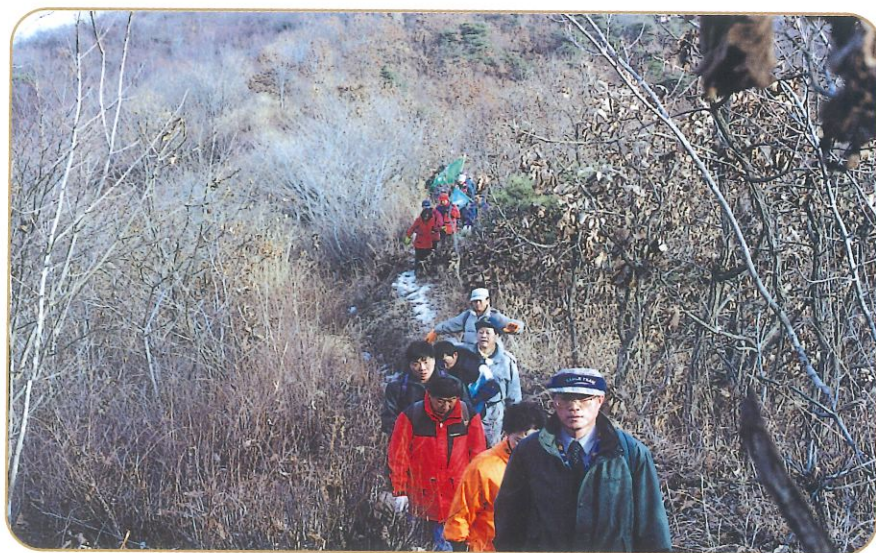


임진강 아래에서 바라본 주월리 적벽





강위에서 바라본 울포리 적벽



두지리 교통로를 통과하면서 (민간인 절대통제 구간)



주월리 모래사장



주월리 '갯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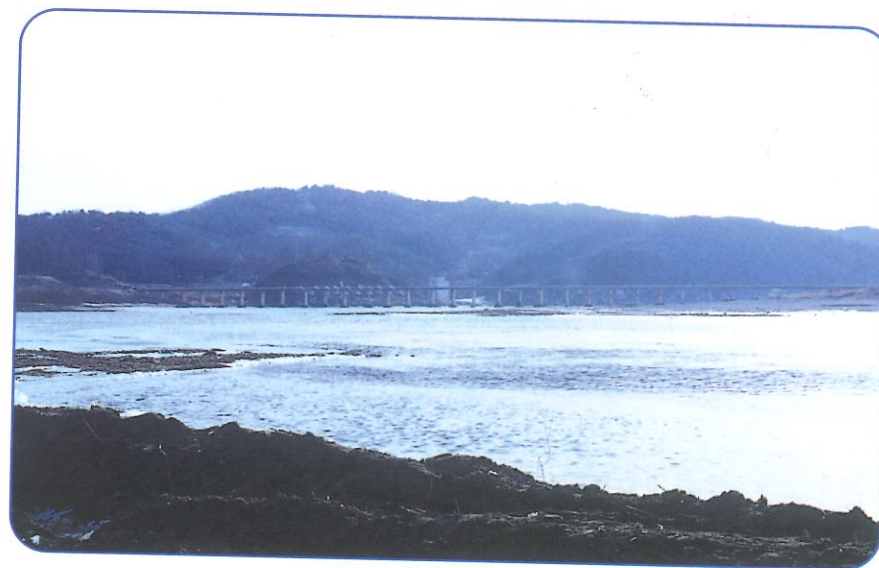
두지리 여울목



두지리 여울목



두지리 교통호에서 바라본 절경



두지리에서 바라본 장남교 (두지교)





자장리 아름다운 적벽을 뒤로하며 전진하는 탐사대원



자장리 험한 구간을 통과하는 탐사대원들



'99 수마로 얼룩진 가월리 강변



장파리 제방을 통과하면서





리비교에서 바라본 저녁노을 (장파리)



파평면 장파리 리비교 아래에서 바라본 적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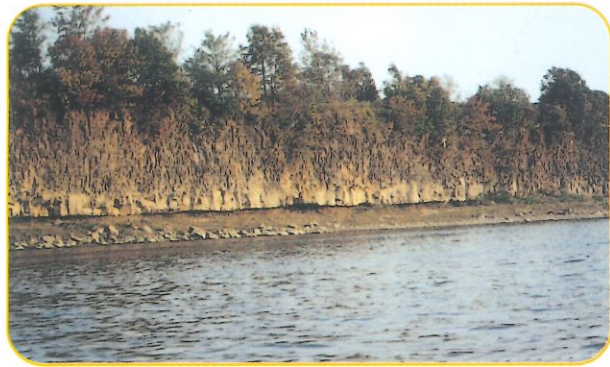


파평면 장파리에서 전진교를 바라본 적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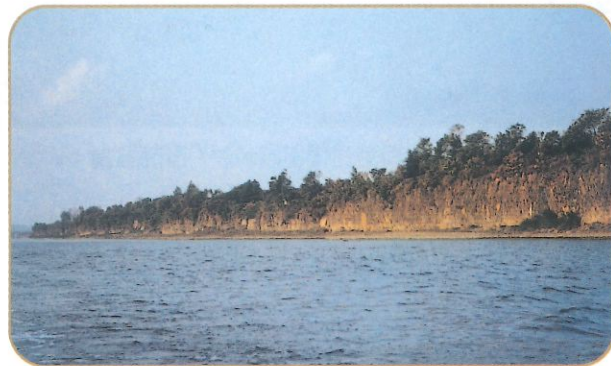


파평면 장파리 하포나루 적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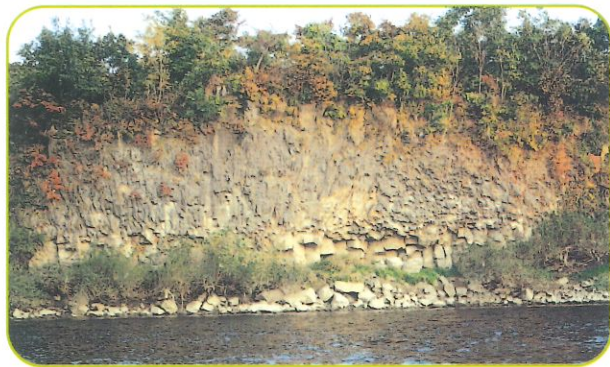




파평면 장파리 하포나루 적벽



전진교에서 바라본 적벽



파평면 금파리에 위치한 적벽

## 임진강수계치수기본계획

| 河川    | 測 點<br>(No.) | 追加距離<br>(km) | 頻 度 別 洪 水 位 (EL. m) |       |       |       |       | 備 考    |
|-------|--------------|--------------|---------------------|-------|-------|-------|-------|--------|
|       |              |              | 50年                 | 80年   | 100年  | 150年  | 200年  |        |
| 臨 津 江 | 0            | 0.000        | 8.52                | 8.82  | 9.00  | 9.24  | 9.45  | 汶山川合流點 |
|       | 1            | 0.500        | 8.51                | 8.80  | 8.98  | 9.22  | 9.43  |        |
|       | 2            | 1.000        | 8.49                | 8.79  | 8.97  | 9.20  | 9.41  |        |
|       | 3            | 1.500        | 8.57                | 8.87  | 9.05  | 9.30  | 9.51  |        |
|       | 4            | 2.000        | 8.48                | 8.78  | 8.96  | 9.20  | 9.40  |        |
|       | 5            | 2.500        | 8.75                | 9.06  | 9.24  | 9.48  | 9.69  |        |
|       | 6            | 3.000        | 8.76                | 9.07  | 9.25  | 9.49  | 9.70  |        |
|       | 7            | 3.500        | 8.77                | 9.07  | 9.25  | 9.50  | 9.71  |        |
|       | 8            | 4.000        | 8.79                | 9.09  | 9.27  | 9.51  | 9.71  |        |
|       | 9            | 4.500        | 8.96                | 9.26  | 9.43  | 9.67  | 9.87  |        |
| 江     | 10           | 5.000        | 9.19                | 9.51  | 9.68  | 9.93  | 10.17 | 自由大橋   |
|       | 11           | 5.500        | 9.19                | 9.50  | 9.68  | 9.93  | 10.19 |        |
|       | 12           | 6.000        | 9.34                | 9.66  | 9.83  | 10.08 | 10.33 |        |
|       | 13           | 6.500        | 9.30                | 9.61  | 9.78  | 10.03 | 10.28 |        |
|       | 14           | 7.000        | 9.54                | 9.86  | 10.03 | 10.28 | 10.54 |        |
|       | 15           | 7.500        | 9.68                | 10.01 | 10.18 | 10.43 | 10.68 |        |
|       | 15 - 110     | 7.610        | 9.70                | 10.02 | 10.19 | 10.45 | 10.70 |        |
|       | 16           | 8.000        | 9.75                | 10.07 | 10.24 | 10.50 | 10.75 |        |
|       | 17           | 8.500        | 10.00               | 10.32 | 10.48 | 10.74 | 10.98 |        |
|       | 18           | 9.000        | 10.44               | 10.76 | 10.93 | 11.19 | 11.42 |        |



| 河川 | 測 點<br>(No.) | 追加距離<br>(km) | 頻 度 別 洪 水 位 (EL. m) |       |       |       |       | 備 考   |
|----|--------------|--------------|---------------------|-------|-------|-------|-------|-------|
|    |              |              | 50年                 | 80年   | 100年  | 150年  | 200年  |       |
| 臨  | 40           | 20.000       | 13.55               | 13.92 | 14.09 | 14.38 | 14.61 | 前 進 橋 |
|    | 41           | 20.500       | 13.71               | 14.09 | 14.27 | 14.57 | 14.81 |       |
|    | 42           | 21.000       | 14.25               | 14.67 | 14.86 | 15.19 | 15.45 |       |
|    | 43           | 21.500       | 14.27               | 14.66 | 14.84 | 15.14 | 15.38 |       |
|    | 44           | 22.000       | 14.37               | 14.77 | 14.95 | 15.26 | 15.50 |       |
|    | 45           | 22.500       | 14.51               | 14.92 | 15.10 | 15.42 | 15.67 |       |
|    | 46           | 23.000       | 14.67               | 15.08 | 15.27 | 15.60 | 15.85 |       |
|    | 47           | 23.500       | 14.74               | 15.16 | 15.36 | 15.69 | 15.95 |       |
|    | 48           | 24.000       | 15.06               | 15.50 | 15.70 | 16.04 | 16.31 |       |
|    | 49           | 24.500       | 15.08               | 15.51 | 15.70 | 16.03 | 16.29 |       |
| 津  | 50           | 25.000       | 15.23               | 15.67 | 15.86 | 16.21 | 16.47 | 리 비 橋 |
|    | 51           | 25.500       | 15.50               | 15.97 | 16.18 | 16.54 | 16.83 |       |
|    | 52           | 26.000       | 15.61               | 16.09 | 16.30 | 16.67 | 16.95 |       |
|    | 53           | 26.500       | 15.86               | 16.34 | 16.56 | 16.94 | 17.23 |       |
|    | 54           | 27.000       | 15.93               | 16.41 | 16.63 | 17.01 | 17.30 |       |
|    | 55           | 27.500       | 16.18               | 16.67 | 16.89 | 17.27 | 17.57 |       |
|    | 56           | 28.000       | 16.17               | 16.67 | 16.89 | 17.28 | 17.59 |       |
|    | 57           | 28.500       | 16.58               | 17.07 | 17.30 | 17.68 | 17.98 |       |
|    | 58           | 29.000       | 16.62               | 17.13 | 17.36 | 17.76 | 18.06 |       |
|    | 59           | 29.500       | 17.05               | 17.53 | 17.75 | 18.13 | 18.43 |       |
| 江  | 60           | 30.000       | 17.51               | 17.96 | 18.17 | 18.54 | 18.82 |       |

| 河川 | 測 點<br>(No.) | 追加距離<br>(km) | 頻 度 別 洪 水 位 (EL. m) |       |       |       |       | 備 考 |
|----|--------------|--------------|---------------------|-------|-------|-------|-------|-----|
|    |              |              | 50年                 | 80年   | 100年  | 150年  | 200年  |     |
| 臨  | 61           | 30.500       | 17.84               | 18.31 | 18.52 | 18.89 | 19.17 |     |
|    | 62           | 31.000       | 17.73               | 18.17 | 18.37 | 18.73 | 19.00 |     |
|    | 63           | 31.500       | 17.82               | 18.27 | 18.47 | 18.82 | 19.09 |     |
|    | 64           | 32.000       | 17.86               | 18.30 | 18.50 | 18.85 | 19.12 |     |
|    | 65           | 32.500       | 18.13               | 18.60 | 18.81 | 19.17 | 19.46 |     |
|    | 66           | 33.000       | 18.26               | 18.72 | 18.93 | 19.30 | 19.58 |     |
|    | 67           | 33.500       | 18.33               | 18.80 | 19.01 | 19.37 | 19.66 |     |
|    | 68           | 34.000       | 18.37               | 18.84 | 19.05 | 19.42 | 19.70 |     |
|    | 69           | 34.500       | 18.66               | 19.15 | 19.37 | 19.75 | 20.05 |     |
|    | 70           | 35.000       | 18.83               | 19.33 | 19.56 | 19.95 | 20.25 |     |
| 津  | 71           | 35.500       | 18.85               | 19.34 | 19.56 | 19.95 | 20.25 |     |
|    | 72           | 36.000       | 18.86               | 19.35 | 19.57 | 19.96 | 20.26 |     |
|    | 73           | 36.500       | 18.84               | 19.32 | 19.54 | 19.92 | 20.21 |     |
|    | 74           | 37.000       | 19.22               | 19.73 | 19.95 | 20.35 | 20.66 |     |
|    | 75           | 37.500       | 19.18               | 19.68 | 19.90 | 20.29 | 20.59 |     |
|    | 76           | 38.000       | 19.80               | 20.33 | 20.57 | 20.98 | 21.30 |     |
|    | 77           | 38.500       | 19.86               | 20.39 | 20.62 | 21.04 | 21.36 |     |
|    | 78           | 39.000       | 19.97               | 20.50 | 20.74 | 21.15 | 21.47 |     |
|    | 79           | 39.500       | 20.14               | 20.67 | 20.91 | 21.32 | 21.64 |     |
|    | 80           | 40.000       | 20.01               | 20.53 | 20.76 | 21.17 | 21.48 |     |
| 江  | 80+100       | 40.100       | 20.26               | 20.80 | 21.04 | 21.46 | 21.78 | 틸 橋 |



| 河川          | 測 點<br>(No.) | 計 劃<br>洪水量<br>(m/sec) | 計 劃<br>洪水位<br>(EL.M) | 計 劃<br>河 幅<br>(m) | 既設堤防高<br>(EL.M) |       | 計 劃<br>堤防高<br>(EL.M) | 餘 裕 高 過<br>不 足 (m) |       | 備 考  |
|-------------|--------------|-----------------------|----------------------|-------------------|-----------------|-------|----------------------|--------------------|-------|------|
|             |              |                       |                      |                   | 左岸              | 右岸    |                      | 左岸                 | 右岸    |      |
| 臨<br>津<br>江 | 0            | 16,200                | 9.00                 | 1,200             | 9.30            | -     | 11.00                | -1.70              | -     | 自由大橋 |
|             | 1            | "                     | 9.05                 | 1,200             | -               | -     | 11.05                | -                  | -     |      |
|             | 2            | "                     | 9.10                 | 940               | -               | -     | 11.10                | -                  | -     |      |
|             | 3            | "                     | 9.14                 | 1,130             | -               | -     | 11.14                | -                  | -     |      |
|             | 4            | "                     | 9.19                 | 1,000             | -               | -     | 11.19                | -                  | -     |      |
|             | 5            | "                     | 9.24                 | 1,360             | -               | -     | 11.24                | -                  | -     |      |
|             | 6            | "                     | 9.25                 | 1,360             | -               | -     | 11.25                | -                  | -     |      |
|             | 7            | "                     | 9.25                 | 1,020             | -               | -     | 11.25                | -                  | -     |      |
|             | 8            | "                     | 9.27                 | 840               | -               | -     | 11.27                | -                  | -     |      |
|             | 9            | "                     | 9.43                 | 710               | -               | -     | 11.43                | -                  | -     |      |
|             | 10           | "                     | 9.68                 | 890               | -               | -     | 11.68                | -                  | -     |      |
|             | 11           | "                     | 9.68                 | 920               | 18.37           | -     | 11.68                | -                  | -     |      |
|             | 12           | "                     | 9.83                 | 810               | 11.23           | -     | 11.83                | -0.60              | -     |      |
|             | 13           | "                     | 9.83                 | 700               | 11.44           | -     | 11.83                | -0.39              | -     |      |
|             | 14           | "                     | 10.03                | 810               | 11.99           | -     | 12.03                | -0.04              | -     |      |
|             | 15           | "                     | 10.18                | 750               | 11.63           | -     | 12.18                | -0.55              | -     |      |
|             | 15+110       | "                     | 10.19                | 700               | -               | -     | 12.19                | -                  | -     |      |
|             | 16           | "                     | 10.24                | 720               | 10.98           | -     | 12.24                | -1.26              | -     |      |
|             | 17           | "                     | 10.48                | 720               | 11.86           | -     | 12.48                | -0.62              | -     |      |
|             | 18           | "                     | 10.93                | 780               | 10.90           | -     | 12.93                | -2.03              | -     |      |
|             | 19           | "                     | 11.21                | 850               | 10.62           | 12.10 | 13.21                | -2.59              | -1.11 |      |

| 河川          | 測 點<br>(No.) | 計 劃<br>洪水量<br>(m/sec) | 計 劃<br>洪水位<br>(EL.M) | 計 劃<br>河 幅<br>(m) | 既設堤防高<br>(EL.M) |    | 計 劃<br>堤防高<br>(EL.M) | 餘 裕 高 過<br>不 足 (m) |    | 備 考 |
|-------------|--------------|-----------------------|----------------------|-------------------|-----------------|----|----------------------|--------------------|----|-----|
|             |              |                       |                      |                   | 左岸              | 右岸 |                      | 左岸                 | 右岸 |     |
| 臨<br>津<br>江 | 40           | 16,200                | 14.09                | (370)             | -               | -  | 16.09                | -                  | -  | 前進橋 |
|             | 41           | "                     | 14.27                | (420)             | -               | -  | 16.27                | -                  | -  |     |
|             | 42           | "                     | 14.86                | (470)             | -               | -  | 16.86                | -                  | -  |     |
|             | 43           | "                     | 14.86                | (360)             | -               | -  | 16.86                | -                  | -  |     |
|             | 44           | "                     | 14.95                | (340)             | -               | -  | 16.95                | -                  | -  |     |
|             | 45           | "                     | 15.10                | (440)             | -               | -  | 17.10                | -                  | -  |     |
|             | 46           | "                     | 15.27                | (350)             | -               | -  | 17.27                | -                  | -  |     |
|             | 47           | "                     | 15.36                | (390)             | -               | -  | 17.36                | -                  | -  |     |
|             | 48           | "                     | 15.70                | (450)             | -               | -  | 17.70                | -                  | -  |     |
|             | 49           | "                     | 15.70                | (330)             | -               | -  | 17.70                | -                  | -  |     |
|             | 50           | "                     | 15.86                | (320)             | -               | -  | 17.86                | -                  | -  | 리비橋 |
|             | 51           | "                     | 16.18                | (430)             | -               | -  | 18.18                | -                  | -  |     |
|             | 52           | "                     | 16.30                | (380)             | -               | -  | 18.30                | -                  | -  |     |
|             | 53           | "                     | 16.56                | (450)             | -               | -  | 18.56                | -                  | -  |     |
|             | 54           | "                     | 16.63                | (420)             | -               | -  | 18.63                | -                  | -  |     |
|             | 55           | "                     | 16.89                | (440)             | -               | -  | 18.89                | -                  | -  |     |
|             | 56           | "                     | 16.89                | (650)             | -               | -  | 18.89                | -                  | -  |     |
|             | 57           | "                     | 17.30                | (680)             | -               | -  | 19.30                | -                  | -  |     |
|             | 58           | "                     | 17.36                | (600)             | -               | -  | 19.36                | -                  | -  |     |
|             | 59           | "                     | 17.75                | (720)             | -               | -  | 19.75                | -                  | -  |     |
|             | 60           | "                     | 18.17                | (670)             | -               | -  | 20.17                | -                  | -  |     |



| 河川          | 測 點<br>(No.) | 計 劃<br>洪水量<br>(m/sec) | 計 劃<br>洪水位<br>(EL.M) | 計 劃<br>河 幅<br>(m) | 既設堤防高<br>(EL.M) |    | 計 劃<br>堤防高<br>(EL.M) | 餘 裕 高 過<br>不 足 (m) |    | 備 考 |
|-------------|--------------|-----------------------|----------------------|-------------------|-----------------|----|----------------------|--------------------|----|-----|
|             |              |                       |                      |                   | 左岸              | 右岸 |                      | 左岸                 | 右岸 |     |
| 臨<br>津<br>江 | 80+100       | 16,200                | 21.04                | (380)             | -               | -  | 23.04                | -                  | -  | 틸 橋 |
|             | 81           | "                     | 21.08                | (420)             | -               | -  | 21.08                | -                  | -  |     |
|             | 82           | "                     | 21.20                | 420               | -               | -  | 23.20                | -                  | -  |     |
|             | 83           | "                     | 21.34                | 410               | -               | -  | 23.34                | -                  | -  |     |
|             | 84           | "                     | 21.89                | (450)             | -               | -  | 23.89                | -                  | -  |     |
|             | 85           | "                     | 22.11                | (610)             | -               | -  | 24.11                | -                  | -  |     |
|             | 86           | "                     | 22.11                | (380)             | -               | -  | 24.11                | -                  | -  |     |
|             | 87           | "                     | 22.12                | (370)             | -               | -  | 24.12                | -                  | -  |     |
|             | 88           | "                     | 22.54                | (450)             | -               | -  | 24.54                | -                  | -  |     |
|             | 89           | "                     | 22.54                | (280)             | -               | -  | 24.54                | -                  | -  |     |
|             | 90           | "                     | 22.84                | (470)             | -               | -  | 24.84                | -                  | -  |     |
|             | 91           | "                     | 23.05                | (600)             | -               | -  | 25.05                | -                  | -  |     |
|             | 92           | "                     | 23.64                | (320)             | -               | -  | 25.64                | -                  | -  |     |
|             | 93           | "                     | 23.64                | (300)             | -               | -  | 25.65                | -                  | -  |     |
|             | 94           | "                     | 23.96                | (350)             | -               | -  | 25.96                | -                  | -  |     |
|             | 95           | "                     | 23.99                | (260)             | -               | -  | 25.99                | -                  | -  |     |
|             | 96           | "                     | 24.76                | (380)             | -               | -  | 26.76                | -                  | -  |     |
|             | 97           | "                     | 24.76                | (250)             | -               | -  | 26.76                | -                  | -  |     |
|             | 98           | "                     | 25.33                | (370)             | -               | -  | 27.33                | -                  | -  |     |
|             | 99           | "                     | 25.39                | (240)             | -               | -  | 27.39                | -                  | -  |     |
|             | 100          | "                     | 25.78                | (240)             | -               | -  | 27.78                | -                  | -  |     |

## 임진강 탐사기행 참가자 명단

| 소 속(직 위)    | 성 명   | 성 별 | 비 고       |
|-------------|-------|-----|-----------|
| 부 시 장       | 이 창 우 | 남   | 단 장       |
| 기 획 실 장     | 이 춘 기 | 남   | 부 단 장     |
| 기 획 실       | 권 예 자 | 여   |           |
| 중 부 일 보 차 장 | 김 영 택 | 남   | 경 영 수 익   |
| 산 약 회 장     | 안 상 훈 | 남   | 농 축 산 과   |
| 산 약 회 부 회 장 | 조 규 영 | 남   | 총 무 과     |
|             | 서 범 석 | 남   | 지 적 과     |
| 산 약 회 총 무   | 윤 승 현 | 남   | 사 회 복 지 과 |
| 산약회기획부장     | 이 영 근 | 남   | 건 축 과     |
| 산약회안전부장     | 정 의 진 | 남   | 탄 현 면     |
| 산약회홍보부장     | 이 이 성 | 남   | 회 계 과     |
| 산약회홍보부장     | 김 영 애 | 여   | 여성복지담당    |
| 문 화 체 육 과   | 이 성 근 | 남   | 관 광 교 류   |
|             | 이 호 병 | 남   |           |
| 환 경 보 호 과   | 이 기 화 | 남   | 환경보전담당    |
|             | 안 배 욱 | 남   | 환경지도담당    |
| 농 축 산 과     | 이 흥 근 | 남   | 축 산 환 경   |
| 산 림 과       | 유 종 삼 | 남   | 녹 지 공 원   |
| 건 설 과       | 서 상 호 | 남   | 하 천 담 당   |
| 상수도관리사업소    | 정 명 기 | 남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
|             | 정 요 섭 | 남   | 수 질 시 험   |
| 보 건 소       | 현 금 숙 | 여   | 한 방 의 약   |
| 적 성 면       | 박 성 태 | 남   | 총 무 담 당   |



